

지금 반드시 풀어야 할 기술
- 문학 편 -

1교시 국어영역

Orbi  피램

& 송운정

피램 comment

1. 현대시or고전시가

시의 기본은 '화자의 상황과 반응 찾기'. 각 시에서 화자가 어떤 상황(시공간적 배경 등)에서 어떤 반응(감정, 느낌 등)을 보이는지를 체크하기.

송윤정T comment

현대시나 고전시가에서 지문을 읽고 파악해야 할 내용에는 <화자, 대상, 상황, 정서&태도>가 있다. 특히 <보기>가 있는 경우 <보기>에 이러한 정보가 드러나 있으므로 반드시 <보기>를 분석한 뒤, 이에 초점을 맞춰 지문을 읽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이자면, 현대시나 고전시가는 작품이 단독 출제되기 보다는 2개 이상의 작품이 출제된다. 따라서 지문 이해의 어려움보다는 문제에서 변별력이 있다. 즉, 선택지가

- (가)와 (나) 모두
- (가)에 비해 (나)는
- (가)와 달리 (나)는

과 같이 대비의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택지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정확하고 빠르게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선택지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선택지를 지워나간 뒤, 나머지 정보로 답을 검증하면 실수하지 않고 풀어 나갈 수 있다.

또한 '도치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와 같이 표현에 따른 효과를 묻는 선택지의 경우, '도치', '시적 긴장감'과 같은 문학 개념어를 알아야 명확하게 풀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기출에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을 풀이하고, 분석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2009.06 [20~23]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니 산(山) 깊은 ㉠ **금덥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섬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女僧)」 -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동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 **버스 정류장**, 흠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
 거리에선 아직도 흠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광 광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2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
다.
-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
다.

21.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
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
- ② ㉡: '여인'이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
- ③ ㉢: '사내'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
- ④ ㉣: '사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
- ⑤ ㉤: '사내'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

23.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
이다.
- ② '이승의 물로 화신'에는 삶에 대한 윤희론적 인식이 엿
보인다.
- ③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
건을 추측하게 한다.
- ⑤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
미지이다.

2010.06 [13~16]

(가)

- [A]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짝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
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 [C]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벌 날으듯 하여라.

- 정지용, 발열(發熱) -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 주사(朱砂):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D] 문 아주 굳이 달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 김영랑, 거문고 -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E] 길 잃고 굽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끓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 최승호, 대설주의보 -

1.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2.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 사항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C]	ㅂ.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 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군.
-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3.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 선생님: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낼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지요. 거문고 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솔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4.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준다.
-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어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2011.06 [19~22]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넘치지도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 메아리가 되어
 되 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배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뽕 두 뽕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흑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降雨)」-

(나)

어두운 방안엔
 뼈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해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떠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에는 과거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21.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마음이 '이 사람'과 함께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함을 나타낸다.
- ②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이 사람'과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에서 화자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그 이전과는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에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난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① 제1연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야. 화자는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 ② 제2연에서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이고, '여느 바다'는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 ③ 제2연의 제2~3행에서 화자는 '여느 바다'의 심상을 통해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로 보아, 화자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제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 ⑤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당신'이 계실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야. 그곳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해.

2015.11B [43~45]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꿀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잦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틈의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풍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낡은 집」-

* 예제로 : 여기저기로.

43.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②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 ④ ㉣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⑤ ㉤ : 쓸쓸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 ①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2018.09 [20~22]

(가)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나)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미옥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러 나가다.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동그이 차고 넘치노나.

쫄그리고 앉은 한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연연턴 녹음, 수목색으로 짙은데
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키도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 정지용, 「달」-

* 궁거워 : 궁금하여.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준다.
- ②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을, ㉡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한다.
- ③ ㉠은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은 화자의 담당한 태도를 표현한다.
- ④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은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말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뭇 견디게 향그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2015.06B [43~45]

이런들 엇더허며 저런들 엇더허료
 초야우생(草野野生)이 이러타 엇더허료
 흥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 허료
<제1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제2수>

순풍(淳風)*이 죽다 허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허니 진실(眞實)로 옳은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슴홀가
<제3수>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허니 자연(自然)이 듯디 죠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허니 자연(自然)이 보디 죠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허애
<제4수>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허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 |
 로다
 떼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허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논 멀리 므음 두는고
<제5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허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롱과 훈가지라
 허물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
<제6수>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有二曲)」 -

* 순풍 : 순박한 풍속.
 * 피미일인 : 저 아름다운 한 사람. 곧 임금을 가리킴.
 * 교교백구 : 현자(賢者)가 타는 흰 망아지. 여기서는 현자를 가리킴.
 * 어약연비 운영천광 : 대자연의 우주적 조화와 오묘한 이치를 가리킴.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삶의 지향을 제시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
- ② 제2수에 나타난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제3수에서는 사회로 확대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 ③ 제3수의 시적 대상을 제4수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룸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④ 제4수와 제5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심화한다.
- ⑤ 제6수에서는 화자의 인식을 점층적으로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집약한다.

44.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하'와 '풍월'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족감을 갖도록 하는 소재이다.
- ② '순풍'과 어진 '인성'은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알려 주는 표지이다.
- ③ '유란'과 '백운'은 화자가 심미적으로 완상하는 대상이다.
- ④ '갈매기'와 '교교백구'는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상징적 존재이다.
- ⑤ '화만산'과 '월만대'는 화자의 충만감을 자아내는 정경의 표상이다.

4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그곳(부친에게 물려받은 별장)에는 씨 뿌려 식량을 마련할 만한 밭이 있고, 누에를 쳐서 옷을 마련할 만한 뽕나무가 있고, 먹을 물이 충분한 샘이 있고, 딸감을 마련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내 뜻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 집을 ‘사가(四可)’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녹봉이 많고 벼슬이 높아 위세를 부리는 자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지만, 나같이 곤궁한 사람은 백에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네 가지나 마음에 드는 것을 차지하였으니 너무 분에 넘치는 것은 아닐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나물국에서부터 시작하고, 천리를 가는 것도 문 앞에서 시작하니, 모든 일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만일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 세상일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태평성세의 농사짓는 늙은이가 되리라. 그리고 밭을 갈고 배[腹]를 두드리며 성군(聖君)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 그 노래를 음악에 맞춰 부르며 세상을 산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으랴.

- 이규보, 「사가재기(四可齋記)」 -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지배층의 핍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자연 은둔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는 모두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한 개인으로서의 소망을 이루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삶의 물질적 여건이 마련된 후에야 자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윗글은 속세에 있으면서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을, <보기>는 자연에 있으면서 속세를 그리워하는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피램 comment

2. 복합지문
: 1번과 같음.

송운정T comment

최근 국어교육의 경향이 ‘통합적 교육’이기 때문에 영역 간 통합 지문과 이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출제하고 있다. 즉, 상호텍스트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문학교육의 목표인 맥락 중심 이해와 평가를 수능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층위를 보면 ‘현대시-고전시가, 고전시가-수필, 독서-고전시가, 독서-현대시, 독서-고전소설-현대소설, 고전소설-고전시가’로 나타난다. 이를 분류해 보면, 갈래 별 통합과 영역 간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갈래 별 통합은 현대시의 접근법처럼 지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를 대비하는 서술의 선택지를 지워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된다. (1. 현대시 참고) 다만 독서와 문학이 통합된 지문은 독서지문이 문학의 이론이나 창작 배경 즉, 맥락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초점으로 지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치 <보기>를 초점으로 지문을 분석한 것처럼 맥락 정보를 중심으로 각각의 작품을 분석한 뒤, 이 세 개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문제를 풀어내야 1등급이 가능하다.

2008.09 [20~24]

(가)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 두견화(杜鵑花)를 부치들고, 봉두(峯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일취(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퍼 놓은 듯, 옛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할사.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나)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빠 다니지 않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네.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 리에 끼었고,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서울 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초록 도롱이 푸른 샷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어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취이니,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不爲浮名役役忙 生涯追逐水雲鄉
平湖春暖烟千里 古岸秋高月一航
紫陌紅塵無夢寐 綠簑青笠共行藏
一聲欸乃舟中趣 那羨人間有玉堂
- 설장수, 「어옹(漁翁)」 -

* 옥당 : 문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청의 별칭.

(다)

나는 성품이 또한 게을러 일찍이 동산을 가꾸지 않았고, 화훼(花卉)에 관심이 없었다. 동쪽 정원에 단지 복숭아나무 한 그루와 잡목 한 그루가 있을 뿐이다. 모두 심지 않았는데도 싹이 트고,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자랐으며, 호미질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된 것들이다. 바야흐로 춘삼월에 복숭아꽃이 막 피어났는데, 꽃잎이 곱고 꽃부리가 연약하며 꽃술이 향기로웠다. 금으로 동글리고 옥으로 깎은 듯, 분칠을 열게 하고 연지를 질게 찍은 듯하였다. 잡목은 그 곁에 서 있는데, 가지나 잎도 볼 만한 것이 없고 꽃도 피지 않았다. 그저 이름도 모르는 나무일 뿐이기에 잡목이라고 불렀다.

하루는 종 녀석이 화원에 가서 한참 바라보더니 복숭아나무로 다가가 어루만지면서 주위를 서성였다. 다시 물을 주고 흙을 복돋아 주고서 떠났는데, 잡목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했다.

“지금 복숭아나무가 잎이 막 싹을 틔우고 꽃이 또 봉오

리를 맺으니, 그 열매가 익기를 기다리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데다가 장차 이익까지 주게 됩니다. 저 잡목은 꽃도 잎도 볼 것이 없고, 과실도 먹을 것이 없는 데다가, 그 뿌리가 굳 세고 가지가 큼니다. 뿌리가 길게 뻗으면 지맥을 막아 복숭아나무가 번식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크면 햇볕을 가로막고 방해하여 양기(陽氣)를 소모하게 되니 복숭아 나무가 번창하여 무성할 수가 없습니다. 베임을 당하지 않는 것도 다행인데, 우리가 지켜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그래, 그렇군.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너는 큰 도리를 듣지 못했느냐? 하늘의 도(道)는 만물에 두루 은혜를 베풀어서 비와 이슬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내리고, 군자는 남을 두루 사랑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인(仁)의 경지를 이룬다. 그러므로 태산의 언덕에 ㉞ 소나무, 계수나무가 가죽나무, 상수리나무와 함께 자라고, 달인(達人)의 문하에 어진 이와 어질지 못한 이가 같이 있게 되지. 복숭아나무와 잡목은 예쁘다는 점과 못생겼다는 점, 특이하다는 점과 평범하다는 점에서 정말로 차이가 있지. 하지만 똑같이 천지의 기를 받아 태어났고, 태어나서 또 마침 나의 동산에 심어져 있구나. 사람이 하나는 보호하고 하나는 버린다면, 잡목으로 태어난 존재가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 나는 내 화원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모두 그 사이에 행(幸)과 불행(不幸)이 있게 하고 싶지 않다. 너는 얼른 가서 가꾸어라.”

- 남공철, 「동원화수기(東園花樹記)」-

2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창작의 동기가 되고 있다.
- ② 세속적 이익을 좇지 않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③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자연에 의지해 잊고자 한다.
- ⑤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2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생관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② (나)는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모두 정경 묘사와 정서의 표출이 어우러져 있다.
- ⑤ (가)는 (나)에 비해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22. (나)의 화자가 <보기>의 ㉠이라고 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강호(江湖)에서 살아가는 어부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 ‘어부’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실제 어부, ㉠ **이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자(隱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① 화자는 자연을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군.
- ② 화자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가 아니기에 ‘배 한 척’은 한가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
- ③ 화자는 자신이 긍정하는 삶을 ‘도통이’ 입고 ‘삿갓’ 쓴 어부로 표상하고 있군.
- ④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뱃사람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겠지.
- ⑤ 화자는 ‘옥당’이라는 공간과 거리를 동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군.

23. (다)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잡목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존재 가치는 인정하고 있군.
- ② ‘나’는 복숭아나무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군.
- ③ ‘종’은 잡목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존재 가치는 인정하고 있군.
- ④ ‘종’은 복숭아나무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군.
- ⑤ ‘나’와 ‘종’은 모두 잡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군.

24.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글쓴이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② ㉡, ㉢은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알게 해 주는 소재이다.
- ③ ㉡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물이고, ㉢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사물이다.
- ④ ㉡는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물을, ㉢은 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⑤ ㉡는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연물을, ㉢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2008.11 [13~18]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 슬픈 신호나

㉡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잠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잠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름소나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계교 :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 ② (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 ③ (나), (다)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는 ㉠과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6.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육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 ① 제1수는 시상 전개에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총효’와 관련되어 있다.
- ③ 제3수의 ‘임천’의 줄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 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 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2009.09 [28~33]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낮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달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나)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불어 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잎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이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이

-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다)

사립을 젖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웠으니,
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낙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어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낙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낙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나.
평생의 곱던 임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점점하니 마음을 돌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흥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라.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값으려니,
값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閭民)* 되어 너 좇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 안조원, 「만연사」-

* 조대: 낚시를 하는 곳.

* 은린옥척: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 한민: 한가로운 백성.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9. (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
①	바닷가	조대	화자가 현재 머무는 장소
②	산새	은린옥척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③	개벽	성세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④	물낮바닥	그림자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⑤	아이	벗님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2009.11 [28~33]

(가)

님은 있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있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 **견장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갖지마는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훔싸고 듭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데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빠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엇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앞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시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님의 닳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A]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 훌훌하여 :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약수 :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30.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 ④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 ⑤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약’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겠군.

3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려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조나 가사에는, 임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2010.06 [31~35]

(가)

정식을 먹은 후, 다시 돌부리를 부여잡기도 하며 5, 6리쯤 나아가 [영랑재]에 올랐다. 천봉만학의 기괴한 형상을 굽어보았다. 주요 형상을 조금 들어 이름 붙여 말하면 이려하다. 사람 모습을 한 것, 새 모습을 한 것, 짐승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사람 모습을 한 것은 앉은 듯 일어난 듯, ㉠우러러보는 듯 굽어보는 듯하여, 마치 장군이 군진(軍陣)을 정돈하자 백만 군졸이 창을 옆으로 비끼고 칼을 휘두르며 다투어 적진으로 내달는 듯도 하고, 높은 스님이 공(空)을 강론하자 수천의 중들이 가사를 어지러이 걸치고 급하게 참선에서 돌아오는 듯도 하다. 새 모습을 한 것은 나는 듯 쫓는 듯, 새끼부르는 듯 꼬리 뒤채는 듯하여, 마치 ㉡기러기 무리가 날개를 가지런히 하여 행렬을 이루어 가을 하늘에 짐을 짊어질 열을 지은 듯도 하고, 짝 잃은 난(鸞)새가 외로운 그림자를 떨어뜨리면서 머뭇거리다가 거울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듯도 하다.

짐승 모습을 한 것은 웅크린 듯 엎드린 듯, 달리는 듯 누운 듯하여, ㉢양들이 흩어져 풀을 뜯다가 해가 저물어 내려오는 듯 도하고, 사슴들이 험한 곳을 달리다가 발을 헛디뎠다 놀라 추락하는 듯도 하다.

지금 생각하면, 망고대와 만폭동에서 본 것은 모두 아이들의 장난같이 여겨진다.

[영랑재에서 절정까지] 4, 5십 리를 에두르고 비스듬히 가는 길에, 해송과 측백나무는 모두 바람을 싫어하여 줄기가 한 쪽으로 쏠리고, 서로 뒤엎혀 질고 열은 푸른빛을 띠었으며, 그 키가 서너 장(丈)쯤 되어 보였다. 사람이 그 위로 걸어가니 마치 ㉣풀로 엮은 다리 위를 걷는 듯했다. 승려 지능이 발을 헛디뎠다 4, 5십 보를 굴렀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또 4, 5백 보를 걸어 비로봉에 올랐다. 사방을 빙 둘러 둘러보니, 넓고도 아스라하여 그 끝을 알지 못할 정도였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마치 학을 타고 하늘 위로 오르는 듯하여, 나는 새라도 내 위로는 쫓구치지 못할 것 같았다.

[A] 이날 천지가 맑고 개어 사방으로 작은 구름 한 점도 없었다. 나는 승려 성정에게 말하였다.

“물을 보면 반드시 원류(源流)까지 궁구해야 하고 산에 오르면 반드시 가장 높이 올라야 한다고 했으니, 요령(要領)*이 없을 수 없겠지요. 산천의 구분과 경계를 하나하나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성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두루 보여 주었다.

-홍인우, 관동록-

*요령: 가장 간요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나 줄거리.

(나)

쇼향노 대향노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수 [진혈담] 고터 올라 안존마리,

녀산(廬山) 진면목이 여기야 다 보인다.

어와 조화옹이 현스토 현스홀샤.

놀거든 쉼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논 듯 백옥(白玉)을 못갯논 듯,

동명(東溟)을 박초논 듯 북극(北極)을 괴왓논 듯.

놈홀시고 망고되 외로울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 겁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논다.

어와 너여이고 너 그터니 썩 잇는가.

[기심담] 고터 올라 등향성 바라보며,

만 이천 봉을 넉넉히 혀여히니,

봉마다 잇쳐 잇고 곳마다 서린 괴운,

웁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몹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온돌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턴디(天地) 삼기실 제 조연이 되연마논,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홀샤.

[B] 비로봉 상상두의 올라 보니 괴 뒤신고.

동산 태산이 어늬야 늑뎡던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논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턴하 었지혀야 적뎡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혀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허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정철, 관동별곡-

(다)

금강 일만 이천 봉이 눈 아니면 옥이로다

혈성루 올라가니 천상인(天上人) 되었어라

아마도 서부진 화부득*은 금강인가 하노라

-안민영-

*서부진 화부득(書不盡畫不得) : 글로 다 써 낼 수 없고 그림으로 다 그려 낼 수 없음.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여행 도중의 감상과 글로 표현할 때의 감상을 구별하며 서술하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물음을 통해 대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단정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사물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묘사하고 있다.

2010.11 [32~37]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삐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든* [절음] 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삐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삐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삐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A]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삐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발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삐꾸새」-

* 길든 : 길이 덜 든.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뒀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떴쳐 와 ㉠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 넓은 용이
선장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쌍룡이 뒀트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흠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니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되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 추월산 머리
짓고 /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B]

- 송수, 「면양정가」-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 모래톱.

* 노화 : 갈대.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④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34.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나)의 설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있다.
-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 ⑤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 ② 2연의 ‘실제의 뼈곡새’는 ‘여러 마리의 뼈곡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36.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보울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㉔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다.
- ② ㉕의 ‘늪은 용’이 ‘선장을 갖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다.
- ③ ㉖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앙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㉗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

신이 추구하는 바를 삼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㉔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꽃는듯 잇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2015.11B [31~34]

(가)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그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냐 놉뉘던고

㉑ 노국(魯國) 조브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천하 엇찌하야 적닷 말고

㉒ 어와 더 디위를 어이흐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흐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원통골 그는 길로 사자봉을 초자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여세라

천 년 노룡(老龍)이 구빅구빅 서려 이셔

주야의 흘녀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㉓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는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㉔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재 너머 디
여

외나모 써근 득리 불정대(佛頂臺) 올라흐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半空)애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빅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그티 플터이셔 뵈그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빅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李謫仙)이 이제 이셔 고터 의논하게 되면

여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흐려니

산중을 미양 보라 동해로 가자스라

㉕ 남여(籃輿) 완보(緩步)하야 산영루(山映樓)의 올라흐
니

영롱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는 이별을 원
(怨...)흐는 듯

[A]

- 정철, 「관동별곡」-

(나)

얼마 후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
등성이를 휘감았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산을 쌓
는 데 아홉길의 흙을 쌓고도 한 상대기의 흙을 엮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북쪽 가의 오
목 한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상봉이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터져 구멍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록
담**이었다. 주위가 1 리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
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얕은 곳은 무릎에, 깊은 곳은 허리에 찻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
등하니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석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털

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으므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세 명뿐이었다.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에 달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扶桑)*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쪽 바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와 향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옹기종기 널려 있는 성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같이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대만상이었다.

[B]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 하인들이 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놓았다.

- 최익현, 「유한라산기」-

* 부상 : 해가 뜨는 동쪽 바다.

3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 자신에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 : 거쳐 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최소화하여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에 자신의 소감을 추가하여 백록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일행 중 낙오한 이들이 있었음을 밝혀 등정 과정이 힘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최고봉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등정 과정에 비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는 (가) 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보기>와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천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정(望洋亭)의 울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머서신고
긋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블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어 육합(六合)의 느리는 듯
오월(五月) 장천(長天)의 백설(白雪)은 머스 일고

- ① [A]와 <보기>는 모두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A]는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하고, <보기>는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 ③ [B]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보기>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조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비들의 산수 유람에는 와유(臥遊)와 원유(遠遊)가 있다. 와유는 일상에서 산수화나 산수 유람의 글 등을 감상하며 국내외의 여러 경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원유는 이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 실제의 자연을 즐기는 흔치 않은 체험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 ① (가)의 화자가 ‘화릉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를 와유할 때 활용될 수 있겠군.
- ②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하며 와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군 .
- ③ (나)의 글쓴이는 원유를 통해 ‘백록담’에서 실감한 자연의 형세를 묘사하고 있군.
- ④ (나)의 글쓴이가 정상에 올라 ‘성현’의 호연지기를 상상하는 데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글쓴이는 ‘소동파’의 시를 통해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군.

2016.09B [34~38]

(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혈어진 성터를 해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불」-

(나)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살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생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 전봉건, 「사랑」-

(다)

1

㉥보리. 너는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이기 전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서 깊이 묻어 놓았었다. 차가움에 응결된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낱알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속에 깊이 심어 놓았었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는 옛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속에 묻어 놓고, 이에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굳어진 허리도 잊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2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강변 밭둑 위에는 앙상한 가시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독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솟아 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地心) 속에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억센 팔들을 내뻗치고, 셋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 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었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 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내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짖는 새파란 하늘과, 산 밑을 흰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서 아직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었다.

3

참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덕 위에 누웠던 잔디가 파아란 속살을 날리고, 들판마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과 산 등성이에까지,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뒤덮는다.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는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셋말간 봄의 춤이 흘러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러지게 불러 대고, 또한 너의 깊고 아늑한 품속에 깃을 틀어놓고, 사랑의 보금자리

를 틀어 놓는다.

- 한혹구, 「보리」-

3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 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35. ㉠~㉣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② ㉡ :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③ ㉢ :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④ ㉣ :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가 '아무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⑤ ㉤ :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① (가)에서 '혈어진 성터'를 해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

- ② (가)에서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벼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④ (나)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곡'이 솟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시상 전개에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 :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 :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 :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 :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 :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 :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리」에서 글쓴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점목하여 그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2017.09 [40~45]

(가)

우리나라 전기소설(傳奇小說)은 중국의 전기(傳奇)와 우리의 설화 등 다양한 서사 갈래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이다. 이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여서,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전기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짜였다.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위로받지만, 결국 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 이처럼 우리의 전기소설은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아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을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

우리 전기소설의 성립에는 민담과 전설 등 설화도 영향을 끼쳤다. 구전되던 설화를 기록하면서 작가의 역량이 발휘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여 전기소설의 갈래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전기소설 주인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로움이다.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이거나 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존재이다. 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에서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 온갖 금기를 넘어서 사랑을 하거나 용궁과 같은 이계(異界)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둘째는 내면성이다. 주인공은 풍부한 감성을 지녀서 외로움을 토로하거나 시를 자주 짓고 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서로 소외감을 나누고 싶어 한다. 셋째는 소극성이다. 남주인공은 소심하고 나약한 존재로서 자신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는다.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을 통해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여 줄 뿐이다. 이처럼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서사 문학사에서 새로운 인물이었다. 이런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들은 설화로부터 분기되어 '소설'로 접근하게 되었고 동시에 다른 작품들과 달리 '전기소설'로 구분되었다.

물론 전기소설의 정립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서, 「조신」, 「김현감호」, 「최치원」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설화와 전기소설 중 어느 한쪽만으로 갈래적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작품들로 평가받는다. 이들 작품은 남녀의 기이한 만남과 파국을 그린다는 점에서 전기소설의 성격을 지녔지만, 기이한 사건으로써 환기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설의 성격을 띤다. 전설에서 인물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다. 가

령 「김현감호」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다. ㉠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다. 전설과 달리 소설에서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진다. 가령 「이생규장전」은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결연하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이야기이다.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전기소설은 『금오신화』를 통해 소설사에 안착했고, 『금오신화』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 다양한 소설적 면모를 보였다. 그리고 이는 후대로 계승되었다.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몽유록 소설로, 이원적 공간 구도는 적강한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 소설로 계승되었다.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와 능동적인 여인상 그리고 애정 교류의 매개체로서의 시의 활용은 애정 소설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전기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양식인 것이다.

(나)

김현이 말하기를, “사랑과 사랑의 사력은 인륜의 도리이지만 다른 유와 사귀는 것은 대개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바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천명이며, 또한 저의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 다섯 이로우미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불법(佛法)을 얻도록 도와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범을 잡은 자에게는 벼슬 2급을 주라고 하였다. 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뢰자, 임금이 우선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김현이 단도를 지니고 숲 속으로 들어 갔다. 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흥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처녀가 김현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김현이 숲 속에서 나와, “지금 범을 쉽게 잡았다.”라고 소리쳤다. 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았다. 일러 준 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

았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김현은 등용된 뒤 서천(西川)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범이 제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시켜 준 은혜에 보답하였다.

- 작자 미상, 「김현감호」-

(다)

“장차 백년해로의 낙을 누리려 했는데 어찌 횡액(橫厄)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으나, 육체는 진흙탕에서 찢겼사옵니다. 절개는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으나,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옛일을 생각하면 원통한들 어찌하겠습니까? 당신과 그날 깊은 산골짜기에서 헤어진 뒤 속절없이 짝 잃은 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의 환신은 이승에 돌아와 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의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생은 매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며,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오.”라고 대답했다. 둘은 말을 주고받았다.

이생은, “모든 가산은 어떻게 되었소?”라고 물었다.

“하나도 잃지 않고 어떤 골짜기에도 묻어 두었습니다.”

“그럼 양가 부모님의 유골은 어찌 되었소?”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함께 취침하니 기쁜 정은 옛날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이튿날 부부는 가산을 묻어 둔 곳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금은 몇 덩이와 약간의 재물이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의 유골을 거두고 금은,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를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낭과 함께 살았고, 피란 갔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생은 이제 세상사를 완전히 잊은 채 친척의 길흉사에도 가 보지 않고 집에서 늘 최낭과 함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어느덧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최낭은, “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시다.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오열하였다.

(중략)

“나도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어 친척들과 노복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 옛사람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예의를 다하여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 예의를 다하여 장례 지낸다.’ 했는데, 부인이 이를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의 천성이 순효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겠소?”

최낭은,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되고, 죄가 제게만이 아니라 낭군님께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제 유골이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유골을 거두

[A] 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자취를 감추었다.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그 후 이생은 최낭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40. (가)에서 설명한 중국의 전기와 우리의 전기소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기에서 작가는 현실적 사건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 ② 전기와 전기소설의 결말은 모두 유기적인 서사 구조 속에서 전형성을 보여 주었다.
- ③ 전기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창작하였다.
- ④ 전기는 전기소설의 영향을 받아 다채로운 문체를 활용하면서도 서사적 독자성을 지향했다.
- ⑤ 전기소설의 작가는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삶을 작품 속 주인공을 통해 위로받고자 했다.

41. (가)를 바탕으로 (나), (다)의 인물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김현은 배필의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소극성’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범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불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김현에게 부탁한다는 점에서 (나)에서 갈등 해결은 종교적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다)의 이생은 최낭의 환신과 더불어 지낼 뿐 벼슬을 구하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쇄성’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다)의 최낭은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이한 방식

으로 이생과 인연을 이어 가려 한다는 점에서 ‘외로움’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⑤ (다)의 최낭이 이생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취를 감춘다는 점에서 (다)에서 현실의 문제는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나)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A]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과 영원히 함께하고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 ② (나)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A]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이 저승의 법을 어긴 대가라며 남주인공을 설득한다.
- ③ (나)의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에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A]의 여주인공은 생전에 자신에게 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한다.
- ④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A]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해소한다.
- ⑤ (나)의 남주인공은 세속적 삶에 회의를 느끼며 속세를 등지고, [A]의 남주인공은 세속적 삶의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43. ㉠을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처녀가 자신의 죽음을 ‘낭군의 경사’라고 말하는 장면은 김현에 대한 부처의 응답을 암시한다.
- ② 매우 ‘사나운 범’이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은 김현 개인의 욕망 실현을 가로막는 현실의 경이로움을 보여 준다.
- ③ 김현이 임금에게 범을 ‘잡을 수 있’다고 아뢰는 장면은 김현과 범 사이의 긴장감이 해소됨을 보여 준다.
- ④ 임금이 김현에게 ‘벼슬을 주어’ 격려하는 장면은 부처의 전능함을 실현하려는 임금 개인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⑤ 범이 김현 앞에서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는 장면은 부처가 남녀의 기이한 만남에 감동하는 계기를 드러낸다.

44. (다)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사랑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낭이 ‘황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에서, 주인공들의 사랑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절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최낭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생과 이별한 자신을 ‘ 짝 잃은새’로 표현하는 것에서, 사랑을 잃은 여주인공의 슬픔을 알 수 있군.
- ③ ‘굳은 맹세’를 지키자는 최낭의 말에 이생이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사랑을 지속하고 싶었던 남녀주인공의 마음을 알 수 있군.
- ④ 최낭이 이생에게 ‘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현세에서 좌절된 사랑을 저승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여주인공의 의지를 알 수 있군.
- ⑤ 최낭이 자신의 ‘죄’가 이생에게도 미칠 것을 염려하는 것에서, 남주인공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여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군.

45. (다)에서 구현된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이생이 ‘가산을 묻어 둔 곳’을 찾아가 금은과 재물을 가져오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② 능동적 여인상은 최낭의 ‘환신’이 이생에게 ‘남은 인연’을 맺자고 제안하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③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는 이생이 최낭의 ‘환신’과 옛날과 다름없이 ‘기쁜 정’을 누리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④ 이원적 공간 구도는 최낭의 ‘환신’이 ‘이승’에 있음에도 ‘저승의 법’을 따라 ‘황천’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⑤ 시가 애정 교류의 매개로 활용되는 것은 이생과 최낭이 ‘시를 지어 주고받’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11 [21~26]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쟁을 다룬 소설 중에는 실재했던 전쟁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허구를 매개로 실재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가령, 「박씨전」의 후반부는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외적에 돌린 무능한 관군 탓에 병자호란 당시 여성은 전쟁의 큰 피해자였다. 「박씨전」에서는 이 비극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전화를 피하기 위한 장소인 피화당(避禍堂)에서 여성 인물과 적군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간의 대립 구도 하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한편, 「시장과 전장」은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을 직시하고 이에 좌절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의지가, 이념 간의 갈등에 노출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을 통해 허구화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전장을 재현하여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연약함이 강조되고, 무고한 희생은 목도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존엄이 탐색되었다.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는 외적의 침략이나 이념 갈등과 같은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이 폭력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쟁의 명분은 폭력을 정당화하기에, 적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편이 죽음은 불의한 적에 의한 희생으로 간주된다. 전쟁은 냉혹하게도 아군이나 적군 모두가 민간인의 죽음조차 외면하거나 자신의 명분에 따라 이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띠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사람들이 죽는 장소가 군사들이 대치하는 전선만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전쟁터란 전장과 후방,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이다.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 받으면서도 생의 의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비극성을 띤다. 이처럼,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우리는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나)

문득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와 크게 꾸짖어 왈, “무지한 **용골대**야,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늘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느냐?” 용골대가 대로하여 꾸짖어 왈, “너는 어떠한 계집이완데 장부의 마음을 돌우느냐?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네 손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다 우리나라의 신첩(臣妾)이라. 잔말 말고 바빠 내 칼을 받아라.”

계화가 들은 체 아니하고 크게 꾸짖어 왈, “네 동생이 내 칼에 죽었으니, 네 또한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리오.” 용골대가 더욱 분기등등하여 군중에 호령하여, “일시에 활을 당겨 쏘라.” 하니, 살이 무수하되 감히 한 개도 범치 못하는지라. 용골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오. 마음에 탄복하고 **조선 도원수** 김자점을 불러 왈, “너희는 이제 내 나라의 신하라. 내 영을 어찌 어기리오.” 자점이 황공하여 왈, “분부대로 거행 하오리다.”

용골대가 호령하여 왈, “네 군사를 몰아 박 부인과 계화를 사로잡아 들이라.” 하니, 자점이 황겁하여 방포일성에 군사를 몰아 피화당을 에워싸니, 문득 팔문이 변하여 백여 길 향정이 되는지라. 용골대가 이를 보고 졸연히 진을 깨지 못할 줄 알고한 꾀를 생각하여, 군사로 하여금 피화당 사방 십 리를 깊이 파고 화약 염초를 많이 붓고, 군사로 하여금 각각 불을 지르고, “너희 우리가 아무리 천변만화지술이 있은들 어찌하리오.”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놓으니,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해매 벽력 같은 소리가 나며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여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박씨가 주령을 드리우고 부채를 쥐어 불을 부치니, 불길이 오랑캐 진을 덮쳐 오랑캐 장졸이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여 다 도망하는지라.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한(憤恨)치 않으리오.”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 제,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안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박씨가 시비 계화로 하여금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왕 놓이 무식하여 **은혜지국(恩惠之國)**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오랑캐 장수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掌中)에 매였으니 그런 말은 생심(生心)도 말라.” 하며, 흑 옥을 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씨가 또 계화로 하여금 다시 외쳐 왈, “너희가 일양 그리하려거든 내 재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게 오며, 음풍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고, 얼음이얼어 군마의 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지라.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함몰할지라. 마지못하여 장수들이 투구를 벗고 창을 버려, 피화당 앞에 나아가 꿇어 애걸하기를, “오늘날 이미 화친을 받았으나 왕대비는 아니 되서 갈 것이니, 박부인 덕택에 살려 주옵소서.”

박씨가 주령 안에서 꾸짖어 왈, “너희들을 모두 죽일 것이로되, 천시(天時)를 생각하고 용서하거니와, 너희 놓이 본디 간사하여 외람된 죄를 지었으나 이번에는 아는 일이 있어 살려 보내나니, 조심하여 들어가며, 우리 세자 대군을 부디 태평히 모셔 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오

랑캐를 씨도 없이 멸하리라.”

이에 오랑캐 장수들이 백배 사례하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

(다)

“피란 안 갔다고 야단맞지 않을까요?”

윤씨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김씨 댁 아주머니의 얼굴도 잠시흐려진다. 그러나 이내 쾌활한 목소리로,

“쌀 배급을 주는데 야단을 치려구요? 세상에 불쌍한 백성을 더 이상 어찌겠어요?”

“그래도 댁은…… 우린 애아범이 그래 났서…… 전에도 배급을 못 타 먹었는데.”

“이 마당에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지간히 시달려 났서 이젠 그렇게들 안 할 거예요.”

독길을 건너서 인도교 가까이 갔을 때 노랑진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어느 구석에 끼여 있었던지 용케 죽지도 않고, 스무 명 가량의 사람들이 떼 지어 간다. 김씨 댁 아주머니는,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미친 듯 뛰어갈 뿐이다.

“여보,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뛰어간다. 윤씨와 김씨 댁 아주머니도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을 따라 뛰어간다. 그들이 간 곳은 한강 모래밭이었다. 강의 얼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여남은 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사실은 배급이 아니었다. 밤사이엔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미처 날라 가지 못했던 **식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갈가마귀**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었다. 그리고 악을 쓰면서 자루에다 쌀과 수수를 집어넣는다. 쌀과 수수가 강변에 흩어진다. 사람들은 **끓주린 이리떼**처럼 눈에 핏발이 서서 자루에 곡식을 넣어 짊어지고 일어섰다. 쌀자루를 짊어지고 강변을 따라 급히 도망쳐 가는 사나이들, 쌀자루에 쌀을 옮겨 넣는 아낙들, 필사적이다. 그야말로 전쟁이다. 김씨 댁 아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달려들어 쌀을 퍼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루 끝을 여민 뒤 머리에 이고 일어섰다. 그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듯 고향 소리, 총성과 함께 윤씨가 폭 쓰러진다. 윤씨는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쌀자루 위에 얼굴을 처박는다. 거무죽죽한 피가 모래밭에 스며든다.

(중략)

김씨 부인이,

“애기 엄마…….”

하고 소리쳐 부른다. 지영은 그냥 쫓아간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찌려고 그러는 거요.”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간다. 독길을 넘었다. 강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물도 하늘도 강 건너 서울도 회색빛 속에 싸여 있었다. 지영은 윤씨를 내려다본다. 쌀자루를 꼭 껴안고 있다. **쌀자루**는 피에 젖어 거무죽죽하다. 지영은 윤씨를 안아 일으킨다. 그리고 들춰 업는다. 그는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음을 옮긴다.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독길까지 나왔다. 독길에서 저 멀리 과천으로 뻗은 길을 바라본다. 길은 외줄기…… 멀리멀리 뻗어 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 박경리, 「시장과 전장」-

21. (가)의 ‘전쟁의 허구화’를 바탕으로 (나), (다)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② (나)는 박씨 등의 여성 인물과 용골대 등의 가해 세력 간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③ (다)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그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④ (다)는 윤씨와 지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용골대’나 ‘중공군’과 같은 단어를 통해 실재 했던 전쟁이 환기되도록 했다.

22.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 병자호란에 대한 백성들의 욕망을 담은 「박씨전」과 다음의 「임장군전」을 읽고 전쟁 체험이 소설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봅시다.

상께서 왈, “길이 막혀 인적이 통하지 못하니 경업이 어찌 알리오. 목전의 형세가 여차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항복할 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들은 다시 말 말라.” 하시고, 양천통곡하시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병자년 12월 20일에 상이 향서를 닦아 보내시니,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용골대가 송파장에 결진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교만이 자심하여 승전비를 세워 거드럭거리며, 왕대비와 중궁을 돌려보내고 세자 대군을 잡아 북경으로 가려 하더라.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① (나)에서 용골대를 꾸짖는 계화와 박씨가 등장하는 것에는 병자호란 때에 있었으면 좋았을 인물에 대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되었겠군.
- ② 「임장군전」에서 항서를 보낸 것에 대해 서술자도 슬픔을 토로하는 것은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연대감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③ (나)와 「임장군전」에서 모두 용골대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데에는 백성들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이 반영되었겠군.
- ④ (나)에서는 박씨의 용서를 통해, 「임장군전」에서는 용골대의 승전비 건립을 통해,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이 반영되었겠군.
- ⑤ 「임장군전」과 달리 (나)에서 박씨의 승전을 통해 왕대비가 불모로 가지 않게 된 과정이 형상화된 것은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이겠군.

23.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고 장안 미색이 끌려가는 장면은 조선 백성들의 비극적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용골대에게 조선 도원수가 복종하여 명령을 따르는 장면은 관군의 무능함을 허구를 매개로 조명하고 있다.
- ③ 박씨의 재주에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해 하는 장면에서, 패전의 고통이 허구적 인물의 활약을 통해 위로받고 있다.
- ④ 오랑캐군의 침략이 은혜지국에 대한 침범이라는 박씨의 비난은 용골대를 비롯한 오랑캐군이 불의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용골대가 장졸들의 죽음에 탄식하는 장면에서, 죽음의 책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박씨에게 돌리려는 오랑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24. (가)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식량’을 얻으려다가 인물이 죽게 되는 것은 전장과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을 보여 주는 것이로군.
- ② ‘갈가마귀떼’는 전쟁으로 인해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기하게 하는군.
- ③ ‘끓주린 이리떼’는 사람들이 전쟁의 폭력에 노출되어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 버렸음을 드러내는군.
- ④ 피에 젖은 ‘쌀자루’는 전쟁의 폭력이 무고한 인물에게 끼친 전쟁의 상흔을 나타내는군.

- ⑤ ‘버랑을 기어오른다’는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25. (나),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나)에서 용골대는 화공이 실패하자 화살로 피화당을 공격하였다.
- ② (나)에서 박씨는 오랑캐군이 화친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기에 회군하는 오랑캐군을 공격했다.
- ③ (다)에서 지영은 윤씨 때문에 김씨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변으로 나갔다.
- ④ (다)에서 윤씨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였다.
- ⑤ (다)에서 김씨 맥 아주머니는 피란 갔던 것을 걱정하는 윤씨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26. (다)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경험을 관념적으로 서술하며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 ⑤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를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피램 comment

3. 현대소설 : 소설의 경우 인물관계, 시공간, 인물의 심리, 배경묘사 혹은 외양묘사가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인데, 이런 것들을 체크하며 읽고 있는지. (특히 9평 중로 한복판 틀렸으면 주목)

송운정T comment

현대소설은 EBS연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낯선 작품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문을 읽기 전에, 작가와 제목을 보고 배경지식을 환기한 뒤, <보기>에서 작품의 내적 정보(주제, 인물, 시점, 갈등의 양상, 갈등의 원인, 갈등의 해소, 배경, 소재)와 작품의 외적 정보(작가의 개성, 창작 배경 등)를 분석한 뒤, 이를 초점으로 지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06 [23~26]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인 까닭인지 모두들 구석진 좌석을 좋아하였다. 구보는 하나 남아 있는 가운데 탁자에 앉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만의 「발스 센티멘탈」을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율이 채 끝나기 전에, 방약무인(傍若無人)한 소리가, 구포 씨 아니오— 구보는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중학을 이삼 년 일찍 마친 사내, 어느 생명 보험 회사의 외교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애 결코 왕래가 없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알은체를 하려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먹은 술 탓인지도 몰랐다. 구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고뚱하여 보이고 ㉡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사내가 또 한 번, 역시 큰 소리로, 이리 좀 안 오시료, 하고 말하였을 때 구보는 ㉢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탁자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 좀 앉으시오. 참, 최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 씨.

이 사내는, 어인 까닭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라고 발음하였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 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래 요새두 많이 쓰시우. 무어 별로 쓰는 것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득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십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내 참 구포 씨 작품을 애독하지.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는 듯싶은 것을 눈치 채자, 사실, 내 또 만나 는 사람마다 보고,

“구포 씨를 선전하지요.”

그러한 말을 하고는 혼자 허허 웃었다. 구보는 의미똥통한 웃음을 웃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내를 고급(高給)으로 채용하여 구보 독자 권유원을 시키면, 자기도 응당 몇 십 명의, 또는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 보고, 그리고 ㉤ 혼자 속으로 웃었다. 참 구보 선생, 하고 최군이라 불린 사내도 말참견을 하여, 자기가 독견(獨鵝)의 「승방비곡(僧房悲曲)」*과 윤백남(尹白南)의 「대도전(大盜傳)」*을 걸작이라 여기고 있는 것에 구보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어느 화재 보험 회사의 권유원인지도 알 수 없는 사내는, 가장 영리하게,

“구보 선생님의 작품은 따루 치고…….”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㉔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하였을 때, 최 군은 또 용기를 얻어, 참 조선서 원고료(原稿料)는 얼마나 됩니까. 구보는 이 사내가 원고료라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래, 구보는 혹은 상대자가 모멸을 느낄지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료라는 것을 받아본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 말하고, 마침문을 들어서는 벼를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어라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와 단장을 집어 들고, 마약 자리에 앉으려는 벼에게,

“나갑시다. 다른 데로 갑시다.”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 「승방비곡」·「대도전」: 193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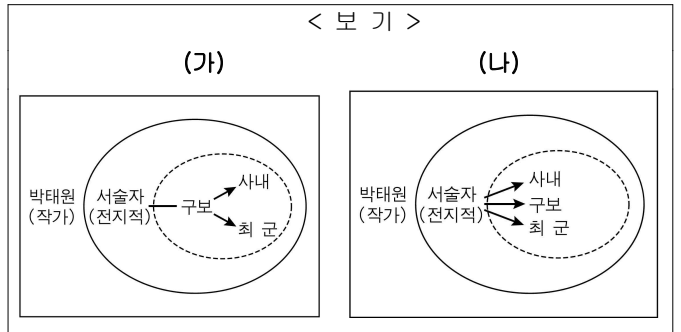
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③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 ④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 ⑤ 첨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5. ㉑~㉔에 나타난 ‘구보’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창피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② ㉒: 상대방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행동하고 있다.
- ④ ㉔: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
- ⑤ 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6. 위 글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㉔를 (나)의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 ②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의감을 맛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 ③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의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
- ④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다.
- ⑤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7. 위 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사내: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내 후배라오. 대단하지요? 자, 대충 보았으니 이제 점심이나 먹으러 갑시다. 내가 한턱내지요. -----①

최 군: 요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작품이 화제입니다. 저 작품 좀 보고 갑시다. 그래야 교양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②

구보: 글썩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③

최 군: 그래도 이런 작품 하나쯤 거실에 걸어 두면 품이 날 텐데,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④

구보: 아무튼 요즘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 해서 문제예요. 내가 소설을 쓰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요. -----⑤

2008.09 [40~43]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적질하러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꺾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선볼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없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 싶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 십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머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득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A]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흥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듯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 **이때 두 -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건넌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이상, 「날개」 -

* 미쓰꼬시 : 일제 강점기에 서울에 있었던 백화점 이름.

* 회탁의 : 회색의 탁한.

* 아달린 : 수면제의 일종.

40. 위 글의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ㄴ.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ㄷ.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ㄹ.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1. 일제 강점기에 미쓰꼬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꼬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②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③ '회택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④ '나'와 '회택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⑤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42. ㉠에 관한 설명의 일부인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철학과 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에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다. 특히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간주했다. '정오'는 인식의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오른 때라는 것이다.

- ① '나'의 의식 상태는 ㉠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겠군.
 ②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을 경계로 어조와 분위기가 바뀔 것이겠군.
 ④ '나'는 '정오'가 되면서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시선을 전환하게 되는군.
 ⑤ 이 작품은 시간의 물리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겠군.

43.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날개」는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여기서 '아내'는 현대 문명을, '나'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상징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사물들과 사건들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도적질하거나 계집질한다고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은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을 의미한다.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③ '나'가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④ 자신도 모르게 아달린을 먹어 왔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의구심은 자기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쩍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2009.06 [28~31]

재종숙은 아무래도 김만호 씨보다는 강 목사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았다.

“둘은 소학교와 농업학교를 같이 다녔고,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사람들이었지. 강 목사는 농업학교를 나온 후 이곳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밤이면 야학을 하였어. 나도 토요일이나 방학에 집에 와서는 그 일을 도와 드렸지.”

그러는 사이에 강 목사와 김만호 씨는 자주 다투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일본 말을 가르치는 일을 못마땅히 생각하였고, 한편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외면한 채 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는 동안 결국 한글 강습소는 문을 닫아야 하였고 강 목사는 고향을 떠나야 하였다.

“이봐, 그때 그 한글 강습소를 폐쇄시킨 게 바로 김만호였어. 우리가 주재소에 가서 훈이 나도록 당한 것도 다 뒤에서 그 작자가 조종을 한 거야. 나도 학교를 마치지도 않고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떠나 버렸어. 귀찮은 일이 자꾸 따라다녔지.”

㉠ 재종숙은 그때 일을 바로 어제 일같이 말하였다.

“그 일뿐이 아니라고. 참으로 못할 짓 많이 하였지. 그런데 내가 해방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 어디 숨어 있는 줄 알았던 그가 아주 요란스럽게 행세를 하고 있었어. 난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재종숙의 말은 자꾸 헛갈렸다.

김만호 씨는 면 농회 근무 3년 만에 서른이 안 된 나이로 면장이 됐다. 재종숙은 아마 그가 제일 악질적인 면장이었을 거라고 말하였다. 더구나 용서하지 못할 일은, 그가 가장 면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제 할 일은 다 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젊은 면장으로서 이 제주 섬에서 가장 도사(島司)의 신임을 얻은 면장이 되었다. ㉡ 재종숙의 말투는 점점 과격하여 갔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아무리 뼈에 사무친 일이라 하더라도 이 나이쯤이면 모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아니었다.

“생각해 보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선구적인 시민상’을 주어. 나라를 팔아먹는 데, 권력의 종노릇 하는 데 선구적이었어. 그건 김만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여. 신문사 문제만도 아니고, 작은 문제가 아니여. 그 사람이 상을 타면 세상 사람의 본이 되는 건데, 아니 모두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여? 안 되여. 안 돼.”

그는 언성을 높였다. 바로 교장 어른을 상대하여 말하는 투였다.

그와 헤어져 거리로 나오자 이번에는 교장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역시 그에게서는 재종숙과는 정반대의 말을

들을 것이 뻔하지만, 재종숙에게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자네가 날 찾아올 줄 알았지.”

교장 어른은 몸소 써서 만든 ‘반야심경’ 열 폭 병풍 앞에서 한복 차림으로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나를 반갑게 맞았다. 나는 그분에게서 곱게 늙고 있는 행복한 서민의 모습을 보았다. 욕심 평생을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만 살다 정년퇴임한 지 몇 해가 되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 사람들의 선생으로 대접받고 있었다. 방 한편 구석 문갑 위에 있는 한란 분이 그 어른의 기품과 어울리는 것 같았다. 세배꾼들이 다녀갔는지 방석들이 즐비하니 널려 있었다.

교장 어른은 아까 종갓집에서와는 다르게 나를 대하면서 벌써 찾아간 연유를 알고 있었다. 나는 신문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설명하고 나서,

“할아버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그분과 오랜 교분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고 계시겠기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적인 일 같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 되도록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사실 나 자신 한 인간의 사회적인 삶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뚜렷한 생각도 잡혀지지 않은 처지라서 우선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그분이 일제 시대에 관리 노릇을 하였고 더구나 면장을 오랫동안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국에 누군들 면장을 해야 했을 거이고, ㉣ 더구나 일본 사람이 면장을 했던 것보담야 훨씬 나았지. 나도 일제 시대 여남은 해 동안 교단에 서서 식민지 교육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그분의 행적에 대하여 시비를 가릴 자격은 없어. 큰집에서 내가 좀 강경하게 말한 것은 자네 칠촌 말일세. 일본 가서 살아서 이곳 사정을 모르는 처지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바람에 비위가 상했던 거야. 자기도 그곳에서 살았으면 아니, 일본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고 독자청정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애국만 하며 살 수 있었겠냐 말이네. 어림없어. 아마 먼저 더 철저하게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살았을지 누가 알아. 사실 이곳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이곳에 살면서 좋은 일 굶은 일 모두 겪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을 말아야 돼.”

재종숙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는 것이었다. ㉤ 그런 교장 어른에게서도 새로운 김만호의 면모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 현길언, 「신열(身熱)」 -

2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사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로 독자의 상상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 ④ 비유적인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여 작품의 미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서술하여 소설 내의 시간을 느리게 진행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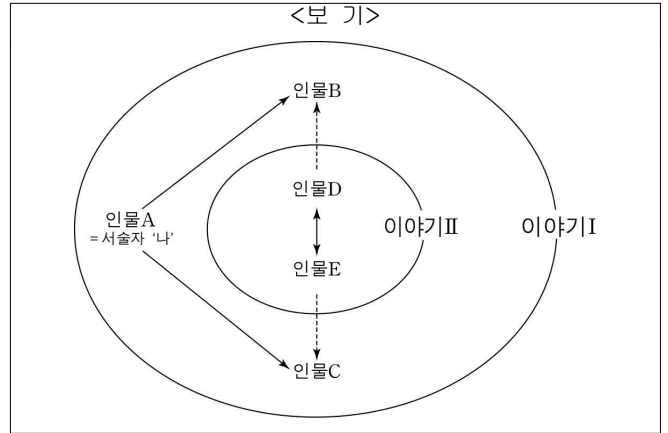
29.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김만호’는 현실의 변화를 재빨리 수용한다.
- ② ‘김만호’와 ‘강 목사’는 삶의 태도와 관점이 매우 다르다.
- ③ ‘교장 어른’은 ‘강 목사’보다는 ‘김만호’의 입장에서 서 있다.
- ④ ‘나’는 ‘재종숙’과 ‘교장 어른’이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재종숙’은 ‘김만호’의 수상 문제가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의 일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다.
- ② ㉡: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흥분하고 있다.
- ③ ㉢: 관련된 사안이 예민한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 ④ ㉣: 상황을 들어 당시 행위를 옹호하려 한다.
- ⑤ ㉤: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실망하고 있다.

31. 위 글의 이야기 구성을 <보기>와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야기 I 과 이야기 II 의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하여 작품의 입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이야기 I 과 이야기 II 의 시간적 배경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보편적 공감을 유도해 내고 있다.
- ③ 이야기 I 의 특정 인물과 이야기 II 의 특정 인물만 서로 갈등 관계를 맺도록 하여 단일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인물 A가 인물 B와 C의 입을 통해서만 인물 D와 E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 II 의 비중이 약화된다.
- ⑤ 인물 A가 이야기 II 속의 인물 D와 E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의 핵심적 의미는 인물 D와 E의 실상 규명과 관련되어 있다.

2009.09 [47~50]

[A] 어둠이 짙어질수록 밤하늘에는 별들이 빙판(氷板)에 얼어붙은 구슬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발밑으로 떨어져 흩날렸다. 그는 [지금] 가로수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았다. 그는 조봉 포켓 속에 구겨 넣은 신문을 다시금 손으로 구겨 쥐었다. 어머니 --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 순간 '아래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실신한 노모'라는 ㉠ **신문** 구절과 함께 노파의 주름진 얼굴이 어머니 얼굴과 겹쳐서 떠올랐다. 그러나 곧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다.' 하는 음성이 그의 마음을 뒤덮고 지나갔다.

'이미 우리는 ㉡ **조국**을 위해서만이 있는 몸이다. 지금의 네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더 보람 있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지.'

약 이 개월 전 일이었다. 그가 투신하고 있는 비밀 결사에서는 한 사람을 암살하지 않으면 안 될 경지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계획된 [그날 밤] 오랜 신병 끝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의 어머니가 숨겨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클락슨 소리가 짧게 밖에서 또 한 번 울려 오고 있었다. 정각에서 삼십 분 전. 야광 초침이 파란 빛깔을 그으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열된 동그란 원반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 **클락슨 소리**가 다시 짧게 울렸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들고 어둠과 마주 섰다.

[B] "연기는 안 돼. 생각해 봐. 우리가 오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나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실패하는 경우엔 이미 우리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들은 삼이라는 성공 숫자 앞에 와 있다. 알겠지? 어머니는 우리가 말을 테다. 조국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우리들이 아니냐."

나직하면서도 몹시 초조한 음성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서 울려나오고 있었다. (중략)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어머니는 방문이 부시시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천장이 축 처져서 내려앉은 ㉣ **방 안**은 더욱 답답하고 어두웠다. 그는 어머니 앞으로 조용히 다가 가서 꿇어앉았다. 고개를 약간 모로 눕히면서 아들 모습을 더듬어 가고 있는 그 눈빛은 다 꺼져 가는 모닥불처럼 희미하게 등잔불 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노파는 아들의 음성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간신히 흔들어 보이는 것 같았다. / "어머니, 의사가 왔었어요?"

그러나 노파는 가만히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가 하여 다시 한 번 어머니 귀 가까이 입을

대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표정을 조용히 지켜다. 험하게 주름져 간 입술이 움직거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 손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하므로 그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물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만을 꼭 움켜쥐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곧 아들의 손을 끌어당겨 자기 뺨 위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미 시선과 손의 감각만으로써 아들을 느껴 볼 수가 없는 듯이 아들의 손을 자기 입술에 가져다 대어 보는 것이었다. 그는 가슴이 뭉클 뜨거운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순간 [머칠 전] 집을 나갈 때 간신히 입을 열고 중얼거리던 어머니 말씨가 눈앞에 또렷이 아로새긴 것처럼 떠오르는 것이었다.

"언제 돌아오냐?"

"오늘은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저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돌봐 달라고 돈도 드렸으니까 근심 마세요. 의사도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들를 거예요."

"오냐."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허공에 눈 주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C] "어머니는 아들만을 위해서 일한다. 나이 들면 들어 갈수록..... 그러나 아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 제 할 일이 더 중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쇠한 어머니의 애뜻한 기대를 깨달지 못하는 바 아니었으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었다.

그는 [지금]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채 자기 손을 끌어당겨다 입술 위에 대고 어루만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후 자기 손을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손은 맥없이 그대로 멈추어졌다. 그는 뼈만이 앙상한, 여윈 어머니의 손가락으로부터 어머니 눈 위로 시선을 옮겼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희미한 어머니의 눈빛, 마치 그것은 먼지 속에 퇴색하여 버린 ㉤ **유리알**처럼 빛을 잃고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지금 아들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어두운 선을 그으며 지나갔다.

[다음날] 그는 밀회 시간을 여기고 그대로 어머니 곁에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서였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집 앞에서 급히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났다.

- 오상원, 「모반」 -

47. 위 글의 서술상의 시간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금(1) → 그날 밤 → 며칠 전 → 지금(2) → 다음날

- ① ‘지금’(1)과 ‘지금’(2)는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
- ② ‘그날 밤’과 ‘지금’(2)는 시간적 배경이 동일하다.
- ③ ‘그날 밤’과 ‘며칠 전’ 장면은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
- ④ 실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며칠 전’이 가장 먼저이다.
- ⑤ ‘다음날’에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 암시되어 있다.

48. ㉠~㉣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이것’은 주체와 타자,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이다. ‘이것’을 매개로 주체는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동시성과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것’은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갖는 장치로 활용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9. <보기>의 ㉠~㉣ 중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보 기>

소설 읽기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여행이다. 우리를 안내하는 작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여행을 돕는다. 그는 ㉠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기도 하고, ㉡ 개념적인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을 떠난 여행이 그렇듯이 소설을 읽는 여정 역시 순조롭지만은 않다. 작가는 ㉢ 외부 사물의 묘사로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암시하기도 하고, ㉣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50. [B]와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에서는 ‘그’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② [B]에서는 ‘비밀결사’가 ‘그’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③ [C]에서는 ‘그’의 ‘할 일’에 대한 어머니의 불신을 읽을 수 있어.
- ④ [C]에서는 ‘그’를 만류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어.
- ⑤ [B]와 [C]의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

2010.06 [23~26]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5시에 ㉠컨베이어 앞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선생님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일은 꼭 학교에 나오라고 한다.

“우선 학교에 나와서 얘기하자.”

버스에 올라탄 선생님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선생님의 손 뒤로 공장 굴뚝이 울퉁불퉁하다. 처음으로 공장 속에서 사람을 만난 것 같다. 버스가 떠난 자리에 열일곱의 나, 우두커니 서 있다. 선생님의 손길이 남아 있는 내 어깨를 내 손으로 만져보며.

다음날 교무실로 나를 부른 선생님은 내게 반성문을 써 오라한다.

“하고 싶은 말 다 써서 사흘 후에 가져와 봐.”

㉡반성문을 쓰기 위해 학교 앞 문방구에서 대학 노트를 한 권 산다. 지난날, 노조 지부장에게 왜 외사촌과 내가 학교에 가야만 하는가를 뭐라구 뭐라구 적었듯이 이젠 선생님께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뭐라구 뭐라구 적는데 어느 참에서 마음속의 이야기들이 왈칵 쏟아져 나온다. 열일곱의 나, 쓴다. 내가 생각한 도시 생활이란 이런 것이 아니었으며, 내가 생각한 학교 생활도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나는 주산 놓기도 싫고 부기책도 싫으며 지금은 오로지 마음속에 남동생 생각뿐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애와 함께 살고 싶다고. 반성문은 노트 삼분의 일은 되게 길어진다.

[A]

반성문을 다 읽은 선생님이 말한다.

“너 소설을 써 보는 게 어떨겠냐?”

내게 떨어진 소설이라는 말. 그때 처음 들었다. 소설을 써 보라는 말.

그는 다시 말한다.

“㉢주산 놓기 싫으면 안 놓아도 좋다. 학교에만 나와. 내가 다른 선생들에게 다 말해 놓겠어. 뭘 하든 니가 하고 싶은 걸 하거라. 대신 학교는 빠지지 말아야 돼.”

그는 내게 한 권의 책을 건네준다.

“내가 요즘 최고로 잘 읽은 소설이다.”

표지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써어 있다.

(중략)

최홍이 선생님. 이후 나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간다. 어색한 이항*으로 마음에 가뒤했던 그리움들이 최홍이 선생님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열일곱의 나, 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가지고 다닌다. 어디서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는다. 다 외울 지경이다. 희재언니가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

[B]

“소설책.”

소설책? 한번 반문해 볼 뿐 관심 없다는 듯이 희재언니가 고개 떨군다. 최홍이 선생님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찬다.

정말 주산을 놓지 않아도 주산 선생님은 그냥 지나간다. 부기 노트에 ㉣대차대조표를 그리지 않아도 부기 선생은 탓하지 않는다.

주산 시간에 국어 노트 뒷장을 펴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겨 본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옮겨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옮겼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옮기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옮기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열일곱의 나는 컨베이어 위에서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기고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고.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고.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고.

그가 소설책을 써 보는 게 어떨겠느냐는 말 대신 시를 써보는 게 어떨겠느냐고 했으면 나는 시인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랬었다. 나는 꿈이 필요했었다.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큰 오빠의 가발을 담당하게 빗질하기 위해서, ㉤공장 굴뚝의 연기를 참아 낼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소설은 그렇게 내게로 왔다.

십이월 중순이 지날 때까지 나는 한경신 선생이 보낸 편지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 가끔 편지를 꺼내 전화는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 9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목을 읽어 보곤 했다. 842-xxxx. 몇 번 편지를 꺼내 읽고 다시 넣고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끝내 전화하지 못했다. 시간은 자꾸 흘러 한경신 선생이 학교에 왔으면 하는 기간인 12월 초와 중순을 지나갔다. 이제는 방학을 했겠구나, 싶었을 때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서랍에 넣으면서 그 학교를 떠난 온 헛수를 헤아려 봤다. 떠난 지 십삼 년이다. 이제는 그때의 일들이 나에게게는 객관화가 되어 있으려니 했다.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땐 나는 그 시절을 다 극복한 것도 같았다.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써 보기로 했다. 그때의 기억을 복원시켜 내 말문을 띄워 보고 내 인생의 폐문 앞에서 끊겨 버린 내 발자국을 연결시켜 줘 보기로.

*이항: 고향을 떠남.

23. ㉠~㉣에 대한 '나'의 심리적 태도가 다른 하나는? [1 점]

- ① ㉠ ② ㉡
- ③ ㉢ ④ ㉣
- ⑤ ㉤

24. 다음은 작가가 남긴 창작 노트의 일부이다. 이 노트의 내용이 [A], [B]에 실현된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3 점]

<보 기>	
.시제의 변화	㉠
.문단 나누기의 효과?	㉡
.간결한 문장 위주로 쓸 것	㉢
.'나'를 부르는 방식에 변화를 줄 것	㉣
.대화보다는 심리 묘사 위주로	㉤

- ① ㉠은 [A]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야기 전개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② ㉡는 [A]에서 문단 사이에 여백을 주어 인과 관계를 명료화 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③ ㉢는 [B]에서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과거를 담당한 어조로 서술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④ ㉣는 [B]에서 서술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을 달리하여 내적 분열을 강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⑤ ㉤는 [B]에서 대화를 최소화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25.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고단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 ② '나'가 소설 쓰기를 배워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③ '나'가 창작의 어려움을 깨달아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나'가 소설을 옮겨 적으며 스스로 위안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나'가 'N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N에 대해 보이는 애착을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 준다.

26. [D]는 작품 창작의 동기를 작품에 직접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D]와 성격이 유사한 것은?

<보 기>	
목중: 오랜만에 나왔으니 예전에 하던 소리나 한번 해보자. 어어으 아-.	
옴중: (뒤에서 달려 나와 탁 치며) 야, 이놈아!	
목중: 이크, 이게 웬 일이냐. 어느 광대 놈이 나오자마자 사람 부터 쳐.①	
옴중: 송아지 풀 뜯어 먹고 올 듯이 '어어으 아' 하면서 나왔다니 거 무슨 말이야?②	
목중: 내가 나오기는 부모 배 밖에 이제 나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놀이판에 나오길 이제 나왔단 말이야.③	
옴중: 옳지. 그럼 우리 여기 모인 양반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받게 제대로 놀아 보자.④	
목중: 너 그러나 저러나 그 쓴 게 뭐냐?	
옴중: 쓰긴 내가 월 써. 일수(日收)를 써 월수(月收)를 써?⑤	
- 양주별산대놀이 개작	

2010.09 [40~43]

젊은이는 사내가 새를 사 주지 않는 데 대한 원망의 기색은 손톱만큼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뭘수록 사내가 난처해질 소리들만 골라서 그를 괴롭게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사내 스스로가 견디질 못하고 가게를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 아드님을 기다리신답니다. 아드님이 시골에 궁전을 지어놓고 영감님을 모시러 오시는 중입니다.

그는 때로 새를 사러 들어온 손님을 상대로 해서까지 그렇게 무참스럽게 사내를 비웃고 무안을 주었다.

- 어디만큼 왔나, 고개만큼 왔지……. 영감님은 날마다 효자꿈에 행복하시지요.

① 사내는 그러나 그런 젊은이의 비웃음을 아랑곳하러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젊은이의 공박에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주위를 짐짓 외면해 버리곤 하였다. 젊은이가 정 그를 못 견디게 매도하고 들 때면 차라리 그 젊은이의 알은 소갈머리가 가없어 죽겠다는 듯 슬픈 눈길로 그를 한참씩 건너다보고 있다가는 조용히 혼자 한숨을 짓고 말 뿐이었다.

하면서도 사내는 좀처럼 젊은이의 새 가게를 떠날 생각을 않고 있었다. 아니 그는 젊은이의 그런 버릇없는 공박 따위로 가게를 아주 떠나 버릴 처지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겐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녀석들에게 모두 새를 사야……. 그래도 녀석들에게 빠짐없이 모두 한 마리씩은 새를 살 수가 있어야…….” 사내는 혼자속으로 중얼거리곤 하였다. 그는 아직도 가막소* 안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가없는 친구들을 위해 새를 사지 않고 혼자서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고 몇번씩 결심을 다짐했다. 그는 그저 지금 당장은 새를 사는 일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새를 사더라도 전날처럼 즐겁거나 기분이 가벼워질 것 못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그것도 그저 그 빌어먹을 잠자리의 악몽 때문일 거라 자신을 변명했다. 밤마다 그를 괴롭혀 대고 있는 빛줄기의 꿈만 꾸지 않게 되면 그는 다시 기분이 회복되어 새를 즐겁게 살 수 있으리라 자신을 기다렸다. 도대체가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악몽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리고 그 빌어먹을 새들이 어째서 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지, 그런 사연을 석연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새를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일어오질 않았다. 그건 마치 어린애들 숭바꼭질과도 같은 어리석은 장난일 뿐이었다.

한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내에겐 또 한 가지 ② 이상 스런 일이 일어났다. 사내는 이날 밤도 그 공원 숲 벤치 위에서 추운 새우잠을 견디고 있었는데, 자정을 한 시간쯤이나 지난 무렵이었을까, 예의 전깃불빛이 다시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했다.

이번엔 물론 꿈이 아니었다. 실제로 빛줄기를 앞세운 ③

밤새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사내는 벌써부터 ④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지가 움츠러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행스럽게도 전번 날 밤과는 사정이 훨씬 달랐다.

빛줄기가 아직 사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날 밤은 그 밤새 사냥꾼이 제 편에서 미리 사내의 잠자리를 피해주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불빛은 좀처럼 사내 쪽으로 다가들 기미를 안 보이고 있었다. 사내와는 한참 거리가 떨어진 숲들만 이리저리 분주하게 휘저어 대고 있었다. 불빛을 맞은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고 있을 뿐이었다. 불빛은 거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졸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는 모른 채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이윽고 야전잠바 옷깃을 들추고 천천히 벤치 위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는 차분한 손짓으로 야전잠바 주머니 속을 뒤져 공초 한 대를 찾아 물었다. 사내가 그 야전잠바 옷깃으로 불빛을 가리며 입에 문 공초에다 막 성냥불을 그어 붙이려던 순간이었다.

후루룩 - !

어둠 속 어느 방향인가부터 느닷없이 사내의 잠바 깃속으로 날아와 박혀드는 것이 있었다. 담뱃불을 붙이려다 말고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 손에 든 성냥불부터 날째게 꺼 없었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께 깃속으로 박혀든 물체를 재빨리 더듬어 냈다. 사내는 이내 물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방금 ⑤ 숲 속의 불빛에 쫓겨 온 한 마리의 새였다. 부드

럽고 따스한 감촉이 손에 닿을 때부터 사내는 벌써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옷깃 밖으로 끌려 나온 새는 두려움 때문인지 가슴

이 몹시 팔딱거리고 있었다. 사내가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옷자락에 성냥불을 켜올 때 녀석은 그 불빛을 보고 달려든 게 분명했다.

“빛에 쫓긴 녀석이 외려 또 불빛을 보고 덤벼들다니……. 역시 새 짐승이란…….”

사내는 녀석의 ⑥ 분별없는 행동이 희한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내의 그런 생각이 오히려 오해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사내는 잠시 녀석을 어떻게 해 주어야 좋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녀석을 금세 그냥 그대로 놓아 보낼 수는 없었다. 녀석은 몹시 겁을 먹고 있었다. 빛줄기에 쫓긴 녀석이 사내에게서 또 한 번 놀라고 있었다. 놀란 녀석을 무작정 다시 어둠 속으로 달아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녀석에게 좀 안심을 시켜서 놓아주기로 작정했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 가막소 : 교도소.

40.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특정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인물이 추리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⑤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4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새 가게’ 이외에는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 ② ‘젊은이’의 태도에 대해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가막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④ ‘젊은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⑤ ‘아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에 맞서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어, 이를 부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현실 사회가 부정적인 공포의 공간이 되는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공원 숲에서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도리어 불빛 속으로 뛰어드는 새를 ‘사내’가 목격하고, 공원 숲이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데서 잘 드러난다. 또한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의 황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를 통해,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 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는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하는 전깃불빛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 ②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은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현재의 공간이 부정적인 공간이 되는 것은 사냥꾼에 쫓긴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현실의 황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는 ‘졸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가 ‘모른 채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자유를 억압하는 강압적인 폭력의 결과는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상황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

43. ㉠~㉣ 중,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015.06B [34~38]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미안스런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 주는 술잔을 받았다.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 버린 뒤,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철철한 인사 범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삿집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할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젊음이 한창인 열아홉부터 악지 세계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가면서까지 먼 일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항시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렵히 안 그러리 싶어지기도 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리무런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볼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A]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 - 어머니의 방일 테지만 - 잠깐 들여다보았다.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위에는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 얘기>라고, 잉크로써 굵직하게 등마루에 씌어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섬 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암것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가져와 봐!”

건우는 싫어도 무가내라 뽑아 오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부끄러운 내색을 하였다.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어디 책 읽은 소감이나 뵈 주게.”

나는 책을 도로 돌려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길 뒤

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 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 쓴 글씨였다.

○○○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래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도」 속의 한 구절 -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선을 가지고 섬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 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중략)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던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 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말락할 무렵에 별안간 왜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는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 보호 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 카더만!”

윤춘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1905년 -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 보호 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 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탁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驛屯土)의 대부분과 삼림원야(森林原野)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인(日人) 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리 속에도 떠올랐다.

[B]

“척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독 을 맨들고 물과 싸워 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 되는지요?”

그의 껍떡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들던 날 “나룻배 통학생임더.”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 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

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 동척 :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준말.
- * 불하 :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34.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②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 준다.
- ③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낸다.
- ④ 구체적 묘사와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 ⑤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은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해 왔음을 알려 준다.
- ② '일류 중학'은 건우 모자의 불하가 교육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 준다.
- ③ '책상'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의 단면을 보여 준다.
- ④ '책 읽은 소감'은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독'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다.

36. [B]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98. 강독 위 (오후,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 후) E.L.S.*

건우 증조부 : (손에 쥔 종이를 움켜쥐고 부르르 떨며)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

소년(건우 할아버지) : 이기 무신 소립니까? 인자 우리 땅이 아니라니요, 조마이섬이 왜놈 땅이 됐다 카는 기 무신 말씀입니까? (건우 증조부, 손에 쥔 종이를 갈기갈기 찢고, 집으로 달려간다. 소년 뒤따라간다.) O.L.

S#99. 나루터 선술집 (저녁)

건우 선생님 : (놀랍다는 듯이) 그러니까 일제 때 토지 조사 사업 한답시고 국유지로 편입시켰다가, 그걸 다시

팔아 먹었던 거군요?

건우 할아버지 : (증오의 눈빛으로) 거서 끝이 아니라고. 아마 건우 애비 중학 졸업하던 땐가 해방 됐다고 만세 부르고 와 보니, 이번엔 국회의원 손에 넘어갔다 카이.

윤춘삼 : 얼마 전부터는 하천 부지를 매립한다나 어쩌다 나…….

건우 할아버지 : 오늘은 시커먼 농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종이 찌각을 뺏 주며 그럽디다, 섬에서 나가는 기 좋을까라고, 내일은 결판을 낼 까라고. (입술을 깨물었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

* E.L.S. : 엑스트림 롱 쉷. 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

- ① S#98에서 조마이섬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 주기 위해 멀리서 섬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을 도입해야겠어.
- ② S#99에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의 대사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겠어.
- ③ S#99에서 관객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이후 벌어질 갈등 상황을 인물의 대사 속에 넣어야겠어.
- ④ S#98~99에서 인물 간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마이섬의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등장인물을 넣어야겠어.
- ⑤ S#98~99에서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됨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특정 대사를 구사하도록 해야겠어.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모래톱 이야기」에서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 서술자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 이는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식이 가미된 결과이다.

- ①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태도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담아낸 것임을 알 수 있어.
- ②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 온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 ③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나'의 이야기가 조마이섬과 관련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면에 감춰진 부조리한 실상을 증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 ⑤ 건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대대로 땅을 빼앗겨 온 조마이섬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38. 문맥상 ㉠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2015.11B [38~42]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과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는 내심 서로 못마땅해한다. 이런 가운데 ‘금지’는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과의 혼사를 진행하려 한다.

설령 금성이가 출중한 재주와 인물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종은 이 혼인을 거절할밖에 없었으리라. 첫째로 금지는 당학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들의 소위만 생각해도 뼈가 저리거든 그런 가문에 내 딸을 들여보내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인가. 도대체 당학*이 무에 그리 좋은고. 그 나라의 바로 전 임금인 당 명황(唐明皇)만 하더라도 양귀비란 계집에게 미쳐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탓에 필경 안록산(安祿山)의 난을 빚어 내어 오랑캐의 말굽 아래 그네들의 자랑하는 장안이 속밭을 이루고 천자란 빈 이름뿐, 축나라란 두메 속에 오륙 년을 갇히어 있지 않았는가. 금지가 당대 제일 문장이라고 추어올리는 이백이만 하더라도 제 임금이 성색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 것을 죽음으로 간하지는 못할지언정 몇 잔 술에 감지덕지해서 그 요망한 계집을 칭찬하는 글을 지어 도리어 임금을 부추겼다 하니 우리네로는 꿈에라도 생각 밖이 아니냐. ㉠그네들의 한문이란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거늘 이것을 좋아라고 배우려 들고 퍼뜨리려 드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오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난이 일어난다면 누가 감당해낼 자이라.

“한 나이냐 젊었더면!”

유종은 이따금 시들어 가는 제 팔뚝의 살을 어루만지면서 한탄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 더러는 있었지만 어느 결엔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인제는 ㉡무 밑동과 같이 동그랄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 속으로는 그의 주의에 찬동하는 이가 없지도 않으련만 당학파의 세력에 밀리어 감히 발설을 못 하는지 모르리라. 지금이라도 젊은이 축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동지를 얼마든지 찾아낼는지 모르리라. 아직도 이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야 방방곡곡을 뒤져 찾으면 몇천 명 몇만 명의 화랑도를 낚는 이를 모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는 젊은이와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점에도 그는 아들이 없는 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었다. ㉢이 늙은 향도(香徒)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벌써 수년을 두고 ㉣그럴 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 보았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띄이지 않았다. 고르며 고를수록 사람 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보담 더 어려웠다. 유종은 기대고 있던 서안에서 쪽 미끄러지는 듯이 털요 바닥 위에 누웠다. 금지의 청혼을 그렇게 거절한 다음에는 하루바빠 사윗감을 구해야 된다. 금지로 하여금 다시

입을 열지 못 하도록 ㉤다른 데 정혼을 해 놓아야 한다. 그러면 신라를 두 손으로 떠받들고 나아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삼한 통일 당년의 능글하고 씩씩한 기풍(氣風)이 당학에 지질리고 문약(文弱)에 흐르는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종’이 사위를 구하는 가운데, ‘주만’이 부여의 천민 석공 ‘아사달’을 사모하고 있음이 알려진다. 한편 ‘아사달’은 자신을 찾아온 아내 ‘아사녀’가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 못에서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못 속에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한다.

그러나 어느 결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박 사라져 버렸다. 아까까지는 어렵풋이라도 짐작되던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아무리 눈을 닦고 돌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만 그 아래로는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험험 내어 돌리었다. 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굴실 움직이는 듯하며 주만의 얼굴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마치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그 눈동자는 띠룩띠룩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A] “이 돌에 나를 새겨 주세요. 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

그 입술은 달싹달싹 속살거리는 것 같다.

아사달은 정을 쥔 채로 머리를 털고 눈을 감았다. 돌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 오고야 말았다. 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정경이 그림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초파일 탐돌이할 때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날 제 코에 풍기던 아릿한 향기, 우리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입김들……. 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흔들었다. 그제야 저 멀리 돈짜만 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주만의 모양을 구름을 헤치고 뚝뚝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 하면, 아사녀는 샬녝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밖에 없었다.

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 그린 듯이 도사

[B] 리고 남편을 기다리던 앓음앓음,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 휘슬레를 돌리듯 핑핑 돌다가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그림자가 이내 한 곳으로 합하듯이,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지고 말았다. 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

졌다. 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다. 설레던 가슴이 가을 물같이 맑아지자, 그 둘 얼굴은 세 번째 제 원불(願佛)로 변하였다. 선도산으로 뉘엿뉘엿 기우는 햇살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 제 못물은 수멸수멸 금빛 춤을 추는데 흥에 겨운 마차와 정 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나절의 고요한 못 독을 울리었다. 새벽만 하여 한가위 밝은 달이 홀로 정 자리가 새로운 돌부처를 비칠 제 정 소리가 그치자 은물결이 잠깐 헤쳐지고 풍하는 소리가 부근의 적막을 한순간 깨트렸다.

- 현진건, 「무영탑」-

* 당학 : 당나라의 학문.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④ 물신주의에 빠진 세태가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의 비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⑤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유종'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이다.
- ③ ㉢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④ ㉣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다.
- ⑤ ㉤은 '유종'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이다.

40. [A],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다.
- ② [B]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 ③ [B]에는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약이 나타나 있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자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무영탑」은 작가 현진건의 예술관, 민족주의적 태도, 현실인식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석가탑 조성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펼쳐 내면서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는 석공 아사달이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 특히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 ① '유종'이 '이백'을 칭송하는 '금지'를 비판하고 화랑도 사윗감을 구하려 하는 장면에서,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돌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사랑과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금지'와 같은 '당학파'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장면에서, 외세를 추종하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④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장면에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군.
- ⑤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빛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군.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설화(「서석가담」)뿐만 아니라, 현진건의 기행문(「고도 순례 경주」, 1929)과 그의 소설(「무영담」, 1939)에도 나타난다.

[자료 1]

불국사 창건 시 당나라에서 온 석공에게 아사녀라는 여인이 있었다. 아사녀가 갑자기 와서 석공과 만나기를 요구하였으나, 큰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아사녀가 비루한 몸이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사녀가 남서쪽 십리쯤에 있는 연못을 내려다보면 석공이 보일 듯 하여, 가서살펴보니 정말 석공의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탐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무영담이라 불렀다.

- 「서석가담」-

[자료 2]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그는 제 예술로 죽은 아내를 살리고 아울러 부처님에게까지 천도(薦度)하려 한 것이다. 이 조각이 완성되면서 자기 역시 못 가운데 몸을 던져 아내의 뒤를 따랐다. 불국사 남서방에 영지(影池)란 못이 있으니 여기가 곧 아사녀와 당나라 석공이 빠져 죽은 데다.

- 현진건, 「고도 순례 경주」-

- ① 윗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군.
- ② 윗글은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 간 작품이군.
- ③ 윗글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기에 ‘유종’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군.
- ④ 윗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군.
- ⑤ 윗글의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군.

2017.06 [39~42]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겠나?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뺨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이 말을 꺼냈다.

“……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무에 어째 공연한 일이란 말이나?”

부친의 어기는 좀 낮추어졌다.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x x 조씨로 무후(無後)

[A] 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에 진국이 뭉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협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해 보기는 처음이다.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在下者 有口無言)’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성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조 의관(덕기의 조부)이 죽고, 덕기가 재산 상속자가 된다. 조 의관의 유산 목록에 정미소가 없었다는 것을 안 상훈은 정미소를 차지하려고 한다. 한편 상훈은 세간 값

을 적은 종이들을 덕기에게 보내 값을 치르라고 한다.

“어제 그건 봤니?”

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았다.

“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

역정스러운 목소리나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 값으로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안 치러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덕기는 너무 오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말부리만 따고 또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다. 그러나 북통이 터져서 속은 끓었다. 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하고싶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광좌(稱人廣座)* 중에서 그럴 수도 없다.

“이 판에 용이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세간 나부랭이야 저 집에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할 게 아닙니까?”

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들인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 누가 치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다.

[B] “이 판이 무슨 판이란 말이나? 그 따위 아니꼬운 소리 할 테거든 그거 내놓고 어서 가거라. 안 쓰고 굴리는 세간은 너나 쓰렴!”

영감은 자식에게라도 좀 점해서* 그런지 화만 버럭버럭 내고 호령이다.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하시기로…….”

“무어 어째? 널더러 먹여 살리라니? 걱정 마라. 아니꼽게 네가 무슨 총찰이나? 그러나 정미소 장부는 이따라도 내게로 보내라.”

부친은 이 말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정미소 아니라 모두 내놓으라셔도 못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고 없고 간에, 내 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게 두시면 어디 갑니까?”

“이놈 불한당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돈 천도 못 되는 것을 치러 줄 수 없다는 놈이 무어 어째?”

부친은 신경질이 일어났는지 별안간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뺨을 갈기려는 것을 덕기가 벌떡 일어서니까 주먹이 어깨에 맞았다. 병적인지 벌써 망녕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흥분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B] 하고 마루로 피해 나와 버렸다. 그러나 금시로 정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속에 앉은 부친은 딴 세상 사람같이 생각이 들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편야, 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동정도 하는 한편인데,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 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고도 하겠으나, 노래(老來)에 이렇게도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도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 영상섭, 「상대」-

- * 조인광자 : 여러 사람이 뻘뻘하게 많이 모인 자리.
- * 점해서 : 부끄럽고 미안해서.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훈의 부친은 족보를 만드는 데에 ‘한 천 원’이 들었으며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 ②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돈을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③ 상훈은 자신의 부친이 ‘산소’에 ‘돈’을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 ④ 덕기는 ‘세간 값’으로 치려야 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 ⑤ 덕기는 집안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 한다.

40.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에게 말을 돌려서 하려는 것이다.
- ②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이다.
- ③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같게 하려는 것이다.
- ④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다.
- ⑤ 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41. [A], [B]에서 각각 드러나는 부자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와 달리 [A]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추어 내며 책망한다.
- ② [A]와 달리 [B]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동정한다.
- ③ [A]와 달리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린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간섭을 못마땅해한다.
- ⑤ [A]와 [B] 모두에서 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버지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상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준다. 이러한 서술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 ①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
- ②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 ③ ㉠에서는 영감의, ㉡에서는 덕기의 시각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을 낮게 평가하며 그와의 심리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가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와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이 드러난다.

피렘 comment

4. 고전소설 : 현대소설과 출제포인트는 같다. 추가적으로 서술자의 개입이 나오면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송운정T comment

고전소설의 지문 분석법은 현대소설과 같다. 하지만 고전소설만의 특징인 '서술자 개입(편집자적 논평), 비현실성, 우연성'이 지문을 분석하다 나오는 경우 밑줄이나 별표 같은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은 고전소설만의 특징이므로 문제로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고전소설은 전기소설, 영웅군담소설, 판소리계소설, 가정소설, 환몽소설의 갈래에 따라 문항 패턴이 다르므로, 각각의 갈래마다 대표작품을 분석해서 평가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11 [27~30]

유 한림은 두(杜) 부인 모자를 집으로 초청했다. 큰 잔치를 열어 전별하려는 것이었다. 두 부인은 그 자리에 사씨가 없는 것을 보고는 ㉠ 온종일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다가 마침내 한림에게 말했다.

“오라버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로 조카님을 의지해 지내왔네. 이제 만 리 먼 작별을 앞두고 내가 한 마디 부탁을 하려고 하네.”

유 한림은 무릎을 꿇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사씨 문제라네. 사씨는 오라버니께서 아끼던 사람으로 성품이 본래 근실하고 신중하네. 그에게 죄과가 없으리라는 것은 백 번이라도 보장할 수 있지. 내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그대로 믿지 말게. 설혹 그의 잘못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도 반드시 내게 편지를 보내 의논해 주게. ㉡ **부디 가볍게 처리하지 말게나.**”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두 부인이 이어서 시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부인은 어디 계시냐? 내 직접 가 보아야겠다.”

시비는 두 부인을 모시고 사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사씨는 누추한 방에 거적을 깔고 있어 보기에도 처참했다. 나무 비녀와 베치마에 다복숙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데, ㉢ **몸은 초췌하여 의복도 이기지 못할 듯했다.**

사씨는 두 부인을 맞아 절을 올린 후 말했다.

“속속*께서 영귀하여 멀리 떠나시지요. 그러나 돌아보건대 저는 상복을 입은 사람이고 또한 씻을 수 없는 죄명을 지고 있어, 감히 뜰에 나가 경하 드리며 떠나시는 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또한 나가서 뵈을 수가 없었습니다. ㉣ **이생에서는 다시 존안을 대할 날이 없을 듯하여 무궁한 한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부인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임종하실 때 한림을 내게 부탁하셨지.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네. 내가 조카를 잘 인도하지 못한 탓에, 자네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어. 모두 내 허물 일세. 그런데 ㉤ **내가 몇 해 전에 자네에게 했던 말을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사씨는 다시 절을 하고 대답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찌 잊을 날이 있겠습니까? 제가 눈은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어찌 감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 부인이 떠난 뒤, 사씨는 또다시 교씨의 흥계에 빠진다. 교씨는 울면서 사씨를 모함한다.

마침내 한림은 화를 벌컥 냈다.
 “투부*가 처음에 저주를 했을 때, 나는 부부의 정의의
 생각
 하여 차마 적발할 수가 없었지. 그 후 신성현에서 더러
 운 행실을 한 단서가 이미 드러났을 때에도 죄를 묻지 않
 았어. 지금 또 이렇게 세상에 보기 드문 흉악한 짓을 하다
 니……. 이 사람을 집안에 그대로 둔다면 조상께서 제사를
 흥행하지 않으시고, 자손도 완전히 끊어질 거야.”
 한림은 교씨를 위로하였다.
 “오늘은 이미 저물었네. 날이 밝으면 일가들을 모아 사
 당에 고한 후에 투부를 내칠 것이네. 그리고 자네를 부인
 으로 삼을 것이야. 쓸데없이 슬퍼하지 말게. 꽃 같은 얼굴
 만 상하겠네.”
 교씨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같이 조치하시다니……. 이제 첩의 원한이 거의 풀렸
 습니다. 하지만 ㉞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
 까?”
 한림은 즉시 일가들에게 통지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
 래로 모이게 했다.
 아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
 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여러 시비들이 달려가 사씨에게 그 전말을 고하고 통곡
 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속속: 두 부인의 아들을 가리킴.
 * 투부: 질투심이 많은 여자. 사씨를 가리킴.

2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이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 ③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씨가 곤경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
고 있다.
- ② ㉡: 사씨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 ③ ㉢: 낯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사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씨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 ⑤ ㉤: 잘못된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씨의 태도
를 드러내고 있다.

29. 위 글로 보아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상 자신의 말을 스스로 지키며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
하도록 하게. 언행이 일치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 ② 새로 들어온 사람을 잘 대해 주게. 그 사람이 우리 가
문에 처음 들어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잘 모를
것이니네.
- ③ 사람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네. 그러니 자네는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자네의 말은 바 소임에만 충
실하도록 하게.
- ④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만류할 줄 알아야 하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하네.
- ⑤ 장부의 뜻에 순종해야만 집안이 화목하고 가문이 번성
할 수 있네. 사사로이 자네의 감정을 앞세워 장부의 심
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야.

30. 독자의 입장에서 ㉤를 비판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은? [1점]

- ① 표리부동(表裏不同)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호가호위(狐假虎威)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 ⑤ 감탄고토(甘香苦吐)

2009.11 [47~50]

처사가 말했다.

“제가 한 딸을 두었으나 십육 세가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삽기로 천하를 떠돌다가, 다행히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 여식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문에 용납될 만하니, 외람하오나 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이까?”

상공이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하리라.’ 생각하고 답했다.

“존객은 선인이요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인간 세상 사람이 선인과 혼인을 의논하리까?”

처사가 답했다.

㉠ “상공은 아국 재상이요 나는 미천한 인물이라. 미천한 인물이 귀덕에 청혼함이 극히 불가하오나 버리시지 아니하면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공이 즐겨 즉시 혼인을 허락했다.

이때, 상공이 친척들을 모아 정혼한 일을 이야기하니 부인이 의아해 하며 말했다.

㉡ “혼인은 인륜대사라. 어찌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하시나이까?”

하고 의논이 분분하자 공이 말했다.

“내 들으니 처사의 딸이 재덕을 겸비했다 하기에 혼약했으니 괜한 시비 마시오.”

차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들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논박이 그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라. ㉢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꾀꼬리는 환우성(喚友聲)*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점을 찾아가 쉬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니 볼 수 없고, ㉣ 춤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돕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 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산궁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을 곳은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위에 노송을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홀연 산곡에서 노랫소리 나며 초동 수상 인이 나오거늘 반겨 길을 물으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 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이온데, 우리 지금 박 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나이다.”

공이 기뻐 또 물었다.

“처사는 집에 계시더냐?”

초동이 대답했다.

“옛 노인이 말하기를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엮어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칭호를 박 처사라 하고 살았는데 돌연 간 곳을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만 들었지, 지금 박 처사가 산단 말은 금시초문 이로소이다.”

공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더욱 아득하여 말했다.

“처사가 그곳에서 살던 때는 몇 해나 되었나뇨?”

초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게서 산 지가 사백 년이라 하더이다.”

하며 다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늘 공이 더욱 막막하여 하늘을 바라 크게 웃으며 차탄했다.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도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 주점에 돌아와 머물새, 시백이 부친을 위로했다.

㉤ 옛날 한(漢) 무제도 선술을 구하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사온지라. 도로 돌아감만 같지 못하오이다.”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지 않은즉 허황함이 막심한지라. 내일은 곧 전안(奠雁)*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

하고 이튿날 노복을 데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반일토록 산중을 왕래하여 찾더라.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갈건야복으로 죽장을 짊고 백우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유히 산곡에서 내려오니 반갑기도 그지없다. 일행이 고대하던 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박 처사가 분명한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

* 환우성: 벗을 부르는 소리.

* 전안: 전통 혼례 진행 절차 중의 하나.

47.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박 처사’가 혼인을 청한 것은 ‘상공’의 인품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 ② ‘상공’이 사람을 보는 눈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데가 있다.
- ③ ‘상공’의 부인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하여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 ④ ‘초동’은 길을 헤매고 있는 ‘상공’ 일행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다.
- ⑤ ‘이시백’은 부친의 성급한 혼인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4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진한 경양 표현을 통해서 청혼 자리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 한문 구절을 끌어 와서 인물이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드러내게 한다.
- ③ ㉢: 시선의 이동에 따라 경치를 묘사하여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 ④ ㉣: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 ⑤ ㉣: 대화 속에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을 부각한다.

4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 소설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고전 소설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수평적 사고를 취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박씨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으로 ‘금강산’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천상 존재인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 속에 아우르고 있다.

- ①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결과이군.
- ②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장소로 금강산을 설정한 것은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 ③ ‘상공’이 ‘박 처사’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겠군.
- ④ ‘박 처사’와 ‘상공’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군.
- ⑤ 초월계의 선인이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박 처사’로 불린 인물의 모습은 금강산의 이중적 성격과도 연관되는군.

50. ㉣에 나타난 ‘상공’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1점]

- ① 이왕지사(已往之事) ② 자포자기(自暴自棄)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2010.06 [43~46]

(가) (아니리)

“제가 세상에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이 말을 듣더니,

“여봐라 별주부야. ㉠토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주거들랑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명을 내리노니 별주부 기가 막혀,

(중머리)

별주부가 울며 여쭙되,

“토끼란 놈이 본시 간사하여 뱃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며는 조목금수(鳥木禽獸)라도 빈정거릴 터이요 맹획(孟獲)을 칠종칠금(七縱七擒)*하던 제갈량의 재주 아니 어든 한번 놀아 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구족(九族)을 멸하여 주옵고 소신을 능지처참하더라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 따 보시오.” 토끼가 기가 막혀,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 이놈 몹쓸 놈아. 왕명이 지중 커늘 내가 어이 기만하랴. 옛말을 내가 못 들었느냐. 하갈(夏桀) 학정으로 용봉*을 살해코 미구(未久)에 망국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 보아

[A]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만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의 나라서 원귀 되고 너의 용왕 백년 살 것을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나라 만조백관 한낱한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아나 옛다 배 갈라라. 똥밖에는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라내 보아라.”

(아니리)

“왜 이리 잔말이 심한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해라.”

별주부가 허릴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데 세상 경계가 장히 좋던가 보더라.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토끼는 육지에 당도하여 별주부를 따돌리고 도망치지만 독수리에게 잡히는 신세가 된다.

(나) (중머리)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나 죽기는 싫지 않으나 수로 천 리 먼먼 길에 겨우겨우 얻어 온 것을 무주공산(無主空山)에 던져 두고 임자 없이 죽게 되니 이 아니 싫소이까.”

(아니리)

“아니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수궁엘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수궁엘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증치’를 하나 주십니다.”

“아니 무엇, ‘의사증치’라는 것이 무엇이나.”

“글쎄 그것이 이상스럽습니다. 짝 퍼 놓고 보면 구멍이 한 두서넛씩 뚫어졌죠.”

“그래서.”

“그 한 구멍을 딱 쳐서 ‘씩은 도야지 창자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치고 ‘도야지 새끼나 개 창자나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치며 ‘그 병아리 새끼들 나오너라.’ 하면 병아리가 일천 오백 마리나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무엇이든지 내 소원대로 나오는 그런 보물을 저기 저 무주공산에다가 던져두고 죽게 되니 그 아니 딱한 일ियो.”

“너 이놈 토끼야.”

“네.”

“네 목숨을 살려 줄 테니 그것 좀 날 줄래.”

“아이고, 목숨만 살려 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럼 그것이 어데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굴박을 소주병 들듯 탁 들고서 훨훨 날아가더니,

“여기냐.”

“네.”

바위 옆에다 턱 내려놓고,

“어서 나 시장해 못 살겠다. 빨리 ‘의사증치’ 좀 나오너라.”

“장군님, 내 뒷발을 잡고 놀아 달라는 대로 좀 놔 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내어 올 테니.”

토끼는 꼬가 많은 놈이라 앞발을 바위틈에다 쑥 허니 놓고,

“장군님, 조금만 놔 주시오. 아, 달을 만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 조금 조금.”

뒷발을 탁 차고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시조

반 장을 내것다.

“세월이 여류허여…….”

“너 이놈 토끼야. 아, 내 시장해 죽겠는데 무엇이 그리 한가 해 들어가서 시조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이리 가져오

너라.”

토끼가 호령을 하는데,

“너 이놈 독술아.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테니 어서 날아가거라.”

“너 이놈, 다시 안 나올라니.”

[B] “내가 늘그막에 출입할 수도 없고 집에서 손주나 봐 주고 지나갈란다. 어서 잔말 말고 날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났으니 ‘의사증치’라 하는 것이다.”

-작자 미상, 수궁가 -

*칠종칠금: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 주었다 함을 이르는 말.

*용봉: 중국 하나라의 신하로, 걸왕에게 간언하다 죽임을 당함.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국면이 전환된다.
- ②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③ 창(唱)과 아니리가 교차하면서 갈등이 고조된다.
- ④ 의도적으로 고사(故事)를 오용하여 긴장감을 낳는다.
- ⑤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 준다.

44. [A]와 [B]에 나타난 ‘토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권력자에 기대어, [B]는 연륜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② [A]에는 절박함을 숨기려는 심리가, [B]에는 득의양양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에게 대응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자극하고 있다.
- ⑤ [A]는 [B]와 달리, 드러난 청자뿐 아니라 작품 속의 다른 인물까지 청자로 상정하고 있다.

45. ㉠에 담긴 ‘용왕’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토끼가 말하는 것을 보니, 허장성세(虛張聲勢)가 대단하군.
- ② 토끼가 돌아올 때까지 수주대토(守株待兔)하듯 기다려야겠군.
- ③ 토끼가 이리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니 말로라도 대접하는 척해 주지.
- ④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는데, 토끼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겠어.
- ⑤ 자가당착(自家撞着)도 유분수지, 겨우 잡아 온 토끼를 놓아 주어야 하다니.

46. 위 글의 ‘의사중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수리의 관심을 토끼에게서 돌리는 수단이 된다.
- ② 토끼는 획득 경로를 밝혀 신빙성을 높이려고 한다.
- ③ 독수리와 토끼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④ 실재하지 않으면서, 실재하는 존재들에 영향을 끼친다.
- ⑤ 독수리와 토끼의 서로 다른 욕망이 만나는 지점이 된다.

2011.09 [21~24]

하루는 승상이 심사가 상쾌하여 정신을 깨달아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것이 우리의 골육이니, 남은 다 흉물이라 하여도 출산할 때에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심한 것이라면 어찌 선녀가 와서 해산까지 시켰으리오? 필경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듯하니, 아무리 흉악해도 집에 두고 나중을 보사이다.”

하고 저녁을 먹으니, 그것이 밥상 곁에서 밥 먹는 소리를 듣고는 이불 속에서 데굴데굴 굴러 나와 승상 곁에 놓이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이윽히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이것이 귀와 눈이 없건마는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필연 밥을 먹고자 함이라. 아무렇거나 밥을 주어 보리라.’ 하였다. 부인도 고이하여 밥을 갖다가 곁에 놓으니, 그것의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한 모서리가 봉긋하며 마치 주걱 모양 같은 부리를 내밀어 밥을 완연히 먹었다. 승상이 하도 고이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으면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 아무렇거나 밥을 더 주어 보라.”

하였다.

부인이 웃고 밥을 또 가져다 놓으니, 그것이 주는 대로 먹으며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이하게 여겼다.

그것이 밥 먹는 대로 점점 자라 큰 동이만 하게 되었다. 승상이 부인을 청하여 함께 보고 크게 의혹하여 가로되,

“이후는 밥을 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먹이라.”

하고,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원(圓)이라 하라.”

하였다.

밥 먹기를 잘하여 점점 자라 큰 방 안에 가득하니, 더욱 흉하고 고이함을 측량치 못하여 말하기를,

“원이 더 자라면 방을 찢을까 싶으니 넓은 집으로 옮기자.”

하고, 노복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을 여럿이 옮겨 후원 월영각에 가져다 두라.”

하였다. 비복이 겨우 옮겨 월영각에 두고 아침과 저녁을 공급하였다. 몇 년 안에 한 섬의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자라 방이 터지게 되었다.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하여 밤낮 근심으로 지내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어느덧 십여 년이 되었다.

(중략)

이때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內室)이 텅 비어 있었다. 가쪽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난데없는 선동(仙童)이 노복 등을 부르시나

자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온즉,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물으시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묻기를,

“이 일이 하도 고이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뵈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온즉 허물이 곁에 놓여있고 책 세 권이 놓였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였거늘,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덜게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 “네가 어이하여 십 년 고생을 이다지도 하였느냐?”

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內外上下)며 이웃과 친척 가운데 뉘 아니 기뻐하리오.

- 작자 미상, 「김원전」-

21.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김 승상은 흉물의 탄생을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 ② 부인은 흉물이 밥을 먹자 근심했다.
- ③ 노복은 흉물을 대하는 부인의 태도를 비웃었다.
- ④ 김원은 흉한 모습이 부모께 걱정을 끼쳤다고 여겼다.
- ⑤ 김 승상 부부는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했다.

※ <보기>를 참고하여 22번과 2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주인공이 천상에서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와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화소를 적강화소(謫降話素)라 한다. 이 화소를 수용한 「김원전」에서 공간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뉘고, 천상계와 지상계는 주인공 김원의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소통한다. 위 글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결과로 얻게 된 ‘이것’이라는 호칭은 주인공이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② ㉠의 성격 때문에 ㉡의 과정에 선관이 개입한다.
- ③ ㉡에서 ‘밥’ 먹기를 통해 흥물은 이름을 얻게 되어 ‘골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 ④ ㉡의 결과를 비복은 김 승상에게 보고하여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한다.
- ⑤ ㉡ 이후, 부자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김원의 바람은 ‘불초자’라는 호칭으로 구체화된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공간 이동은 죄의 대가라는 점에서 주인공이 ㉠에 대해 수동적임을 알 수 있다.
- ② ㉡, ㉢는 ㉠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③ ㉡, ㉢에 대한 부모의 의심은 천상계와 다른 지상계 나름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에 김원과 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는 증거물을 통해 부모에게 확인받는다라는 점에서 천상계의 질서는 지상계와의 소통 속에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24. ㉠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고진강래(苦盡甘來) ② 괄목상대(刮目相對)
- ③ 권불십년(權不十年)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⑤ 오리무중(五里霧中)

2014.11B [31~34]

【앞부분의 줄거리】 천상에서 별을 받은 문창성은 꿈을 꾸어 인간 세상에 양창곡으로 다시 태어난다. 천상에 함께 있었던 제방옥녀, 천요성, 홍란성, 제천선녀, 도화성도 인간 세상에서 윤 소저, 황 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으로 다시 태어나 양창곡과 결연을 맺는다. 양창곡은 벼슬하고 공을 세워 연왕에 오른다. 그 뒤 부친 양현, 모친 허 부인, 다섯 아내, 자식들과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날 밤에 강남홍이 취하여 취봉루에 가 의상을 풀지 아니 하고 책상에 ㉠의지하여 잠이 들었더니 홀연 정신이 황홀하고 몸이 정처 없이 떠돌아 일처에 이르매 한 명산이라. 봉우리가 높고 험준하거늘 강남홍이 가운데 봉우리에 이르니 한 보살이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백옥 같은데 비단 가사를 걸치고 석장(錫杖)을 짚고 있다가 웃으며 강남홍을 맞아 왈,

“강남홍은 인간지락(人間之樂)이 어떠한가?”

강남홍이 ㉡ 망연히 깨닫지 못하여 왈,

“도사는 누구시며 인간지락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달았거늘 보살이 강남홍을 ㉢ 인도하여 무지개를 밟아 공중에 올라가더니 앞에 큰 문이 있고 오색구름이 어리었는지라. 강남홍이 문 왈,

“이는 무슨 문입니까?”

보살 왈,

“남천문이니 그대는 문 위에 올라가 보라.”

강남홍이 보살을 따라 올라 한 곳을 바라보니 일월(日月) 광채 ㉣ 휘황한데 누각 하나가 허공에 솟았거늘 백옥 난간이며 유리 기둥이 영롱하여 눈이 부시고 누각 아래 푸른 난새와 붉은 봉황이 쌍쌍이 ㉤ 배회하며 몇몇 선동(仙童)과 서너 명의 시녀가 신선 차림으로 난간머리에 섰으며 누각 위를 바라보니 한 선관과 다섯 선녀가 난간에 의지하여 취하여 자는지라. 보살께 문 왈,

“이곳은 어느 곳이며 저 선관, 선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보살이 미소 지으며 왈,

“이곳은 백옥루요 제일 위에 누운 선관은 문창성(文昌星)이요 차례로 누운 선녀는 제방옥녀(諸方玉女)와 천요성(天妖星)과 홍란성(紅鸞星)과 제천선녀(諸天仙女)와 도화성(桃花星)이니, 홍란성은 즉 그대의 전신(前身)이니라.”

강남홍이 속으로 놀라 왈,

“저 다섯 선녀는 다 천상에서 입도(入道)한 선관이라. 어찌 저다지 취하여 잠을 잡니까?”

보살이 홀연 서쪽을 보며 합장하더니 시 한 구를 외워 왈,

정이 있으면 인연이 생기고

인연이 있으면 정이 생기도다.

정이 다하고 인연이 끊어지면

만 가지 생각이 함께 텅 비는구나.

강남홍이 듣고 정신이 상쾌하여 문득 깨달아 왈,

“나는 본디 천상의 별인데 인연을 맺어 잠깐 하계(下界)에 내려온 것이로다.”

(중략)

강남홍 왈,

“그러하면 저도 또한 천상의 별이라, 이미 여기 왔으니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갈 마음이 없나이다.”

보살이 웃으며 왈,

“하늘이 정한 인연을 인력으로 할 바 아니다. 그대 인간 인연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빨리 돌아가라. 사십 년 후에 다시 와 옥황상제께 조회하고 천상지락(天上之樂)을 누릴지어다.” 강남홍이 문 왈,

“보살은 뉘십니까?”

보살이 웃으며 왈,

“빈도(貧道)는 남해 수월암 관세음보살이라. 부처의 명을 받아 그대를 지도하러 왔노라.”

보살이 말을 마치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오색 무지개 일어나며 홀연 우렛소리 울리거늘 강남홍이 놀라 깨어 보니 몸이 취봉루 책상 앞에 누웠는지라.

강남홍은 꿈속 일이 의아하여 연왕과 윤 부인, 황 부인, 벽성선, 일지련에게 낱낱이 말하니 그들 또한 같은 꿈을 꾸었는지라. 서로 탄식하며 의아해 하더니 허 부인이 듣고 강남홍더러 왈,

“내 고향에 있을 적 늦도록 무자(無子)하여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고 연왕을 낳았으니 그 돌부처가 곧 관세음보살이라. 그 한량없는 공덕을 갚지 못하였더니 이제 너의 꿈에 나타나 불사(佛事)를 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듣자 하니 벽성선의 부친 보조국사께서 자개봉 대승사에 계신데 불법(佛法)에 정통하다 하니 청하여 옥련봉 돌부처를 위하여 일 개 암자를 짓고 한편으로 대승사에 백일 동안 재(齋)를 울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공덕을 갚고자 하노라.”

벽성선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보조국사를 청하여 재 올리기 를 시작하고 재물을 두히 보내어 옥련봉에 암자를 장건하였더니, 과연 그 후 사십 년을 부귀를 누리다가 양

현과 허 부인은 수(壽)를 팔십여 세 하고, 연왕은 다시 출장입상하여 또한 수를 팔십을 하고, 윤 부인 삼자 이녀(三子二女)에 수 칠십이요, 황 부인은 이자 일녀에 수 육십을 넘기고, 강남홍은 오자 삼녀에 수 칠십이요, 벽성선, 일지련은 각각 삼자 이녀에 수를 또 한 칠십 세를 하니, 연왕의 자녀 합 이십육에 아들 십육 인은 각각 입신양명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딸 십 인은 왕공 부인 이 되어 다자 다복(多子多福)하더라.

- 남영로, 「옥루몽」 -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② 대립적인 두 인물을 배치하여 인물 간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순간적으로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의 환상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 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남홍’은 ‘명산’에서 ‘보살’을 처음 만났다.
- ② ‘보살’은 ‘석장’을 이용하여 ‘남천문’에 당도하였다.
- ③ ‘강남홍’은 선관, 선녀들과 ‘남천문’에서 재회하였다.
- ④ ‘보살’은 ‘강남홍’이 천상의 존재였음을 알려 주었다.
- ⑤ ‘허 부인’은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여 ‘양창곡’을 낳았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옥루몽」의 환몽(幻夢) 구조는 독특하다. 천상계에서 꿈을 통해 속세로 진입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에서 다시 꿈을 꾸어 천상계를 경험하는데, 이때 신이한 존재에 의해 자신의 정체를 깨달으며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꿈에서 깨어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로 돌아와 천수를 누린 뒤에야 천상계에 복귀한다.



- ① ‘강남홍’이 ‘취봉루’에서 꿈에 드는 것으로 보아, ‘취봉루’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입몽하는 공간이군.
- ② ‘강남홍’이 ‘백옥루’를 보며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것으로 보아, ‘백옥루’는 속세에서의 입몽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천상계의 공간이군.
- ③ ‘보살’이 ‘강남홍’에게 인간 세상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살’은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각몽을 유도하는 신이한 존재이군.
- ④ ‘허 부인’이 ‘보살’을 ‘옥련봉 돌부처’와 연관 짓는 것으로 보아, ‘암자’를 창건한 것은 신이한 존재에 대한 속세에서의 보답이군.
- ⑤ ‘양창곡’ 일가가 속세에서 천수를 누리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주인공이 속세에서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로 이루어졌군.

3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대어
- ② 멍하니
- ③ 이끌어
- ④ 눈부신데
- ⑤ 어울리며

2015.06B [39~42]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왕이 대로하여

“네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

경업이 왈

㉠ “병자년에 우리 주상께서 종사를 위하여 네게 항복하여 계시거니와,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네게 항복하리오.”

호왕이 대로하여 무사를 명하여

“내어 베어라.”

하니, 경업이 크게 꾸짖어 왈

“내 목숨은 하늘에 있거니와, 네 머리는 열 걸음 안에 있느니라.”

하고 안색을 불변하여 무사를 보며

“바빠 죽이라.”

하니, 호왕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탄복하며 맨 것을 풀고 손을 이끌어 올려 앉히고,

“장군이 내게는 역신(逆臣)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라. 내 어찌 충절을 해하리오. 장군의 소원대로 하리라. 즉시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셔 임 장군을 주야로 기다리시더니, 문 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고하되

“임 장군이 천자께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았다.”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기꺼워하사 궁문 밖에 나와 기다리시더니, 경업이 나와 울며 절하니,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왕을 보더라.

호왕이

“경들을 임경업이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구하여 돌아갈려하기로, 내 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경들을 보내나니,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가 정을 표하리라.”

하거늘, 세자는 금은을 구하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온 인물을 청하여 어서 돌아가기를 원하니, 호왕이

“각각 소원대로 하라.”

하고 대군을 기특히 여기더라.

(중략)

세자와 대군이 급히 궐내에 들어가 대전께 뵈운데, 주상이 반기사 왈

“너희는 무사히 돌아왔거니와, 경업은 언제나 오리오.”

하시고 탄식하시며 또 가라사대

“세자는 무슨 탐욕으로 금은을 구하여 오느냐?”

하시고 벼루로 내리쳐 치시고 둘째 대군으로 세자를 봉하시니, 이때는 을유년이라.

이때에 호왕의 딸 숙모공주가 있으니 천하절색이라. 부마를 구하더니, 호왕이 경업을 유의하여 공주더러 이르니, 공주가 관상 보기를 잘하여 경업의 관상 보기를 청하거늘, 경업이 부마에 뽀힐까 두려워하여 신발 속에 숨을 넣어 키를 세 치를 돌우고 들어갔더니, 공주가 엿보고 왈

“들어오는 걸음은 사자 모양이요 나가는 걸음은 범의 형용이니 짐짓 영웅이로되, 다만 키가 세 치 더한 것이 애닦다.”

하거늘, 호왕이 마음에 서운하나 그와 방불한 자가 없는지라. 이에 장군더러 왈

“장군이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림이 어떠하뇨?”

장군이 사례하기를,

㉡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극히 황공하며 하물며 조강지처가 있사오니, 존명을 받들지 못하리이다.”

호왕이 재삼 권유하되 경업이 죽기로써 좃지 아니하니, 호왕이 안타까워하더라.

경업이 돌아감을 청하니, 호왕이 미루고 허락하지 아니하거늘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절개 높고 충심이 깊은 사람을 두어 무익하고, 보내어도 해로움이 없사오니, 의로써 보내면 조선이 또한 의로써 섬길 것이니 보냄이 마땅하니이다.”

호왕이 그 말을 따라 큰 잔치를 벌여 대접하고 예물을 갖추어 보낼새, 의주까지 호송하니라.

이때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하는지라. 경업이 돌아오는 패문이 왔거늘, 자점이 헤오되, ‘경업이 돌아오면 나의 계교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고 상께 아뢰기를,

“경업은 반역 죄인이라, 황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치 아니하사 북경에 잡힌 바 되어 계교를 이루지 못하매, 하는 수 없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뒤쫓아 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 죄인을 그저 두겠나이까!”

상이 크게 놀라 왈

“무슨 연고로 만고 충신을 해하려 하는가? 경업이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점을 엄히 꾸중하사

“나가라!”

하시니, 자점이 나와 그 무리와 의논하여 왈

“경업이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 오라.”

하더라.

이때 경업이 데려갔던 격군과 호국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 사자(使者)가 와 이르되,

“장군이 반역했다 하여 역률(逆律)로 잡아 오라 합니다.”

하고 칼을 씌우며 재촉하니, 의주 백성들이 울며,

“우리 장군이 만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거늘, 무슨 연고로 잡혀가는고?”

하거늘, 경업 왈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죄 없이 잡혀가노라.”

하니 남녀노소 없이 무슨 연고인 줄 모르고 슬퍼하더라.

- 작자 미상, 「임경업전」-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군은 호왕의 배려에 따라 소원을 말하였다.
- ② 호왕은 적국의 임금인데도 강직한 임경업을 살려 보냈다.
- ③ 호국 신하들은 임경업을 귀국시켜도 호국에 무해하다고 아뢰었다.
- ④ 김자점은 세자와 대군을 귀국시키려는 임경업의 소원을 방해하였다.
- ⑤ 주상은 세자와 대군은 돌아오고 임경업은 함께 오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다.

40. ‘임경업 부마 삼기’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사건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조선에서 호왕의 나라로 공간적 배경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무산된다.
- ② 이 사건의 주요 과정인 관상 보기에 대해 공주가 수동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공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
- ③ 이 사건의 당사자인 임경업이 천하절색이라는 공주의 외모에 관심을 둬으로써 그가 세속적 인물임이 드러난다.
- ④ 이 사건의 당사자인 공주가 임경업의 비범함을 인정했지만 혼사는 여전히 호왕이 주도하면서 왕실 내부의 갈등이 심화된다.
- ⑤ 이 사건은 임경업의 소원을 들어준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임경업에 대한 호왕의 호감에서 비롯됨으로써 사건 전개에 연속성을 강화한다.

41. 임경업이 말한 ㉠,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회유에 대해 대응하고, ㉡에서는 권유에 대해 반응한다.
- ② ㉠에서는 충신의 도리를, ㉡에서는 남편의 도리를 지키고자 한다.
- ③ ㉠에서는 과거의 사실을, ㉡에서는 현재의 처지를 언급하여 거절한다.
- ④ ㉠에서는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에서는 상대의 권위를 인정한다.
- ⑤ ㉠에서는 죽음을 걱정하고, ㉡에서는 억류를 의도하여 상대에 저항한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 사대부 심노송의 문집 『효전산고』를 보면, 종로의 당배 가게에서 「임경업전」을 낭독하는데, 김자점이 장군에게 죄를 씌워 죽이는 데 이르자 분노한 어떤 이가 “네가 자점이더냐?”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나 낭독자를 해쳤다고 한다. 여기서 보듯 실감나는 낭독은 청중에게 작중 인물이 직접 말하는 것 같은 극적 환상을 일으킨다. 인물의 심리가 즉각 전달되고 사건은 보다 생생해져서, 청중은 낭독자의 안내에 따라 작품을 수용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게 된다. 이 사건은 청에 대한 적대감, 임경업에 대한 혐오 의식에 바탕을 둔 「임경업전」에 청중이 얼마나 몰입했는지 보여준다.

- ① ‘임경업’이 ‘호왕’을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장군의 기개가 ‘호왕’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청에 대한 적대감을 지닌 청중은 통쾌해하겠군.
- ② 칼을 쓰고 잡혀가는 ‘임경업’을 보며 ‘의주 백성들이’우는 장면을 낭독할 때, ‘임경업’을 혐오하는 청중은 무슨 연고인 줄 몰라서 분노를 표출하겠군.
- ③ ‘주상’이 ‘세자’를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세자답지 못한 행동을 꾸짖는 ‘주상’의 분노가 느껴지면서 청중은 ‘세자’를 내리치는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받아들일겠군.
- ④ ‘사자’가 ‘임경업’에게 잡아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낭독할 때, 이야기에 몰입한 청중에게는 마치 작중 인물이 되어 그 대화를 직접 듣는 듯한 극적 환상이 조성되겠군.
- ⑤ 임금과 백성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김자점’에 의해 ‘임경업’이 모해를 입는 장면을 낭독할 때, 간신에 대한 청중의 반감이 커지면서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군.

2017.06 [43~45]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자년(庚子年, 1600년) 늦봄, 최척(崔陟)은 주우(朱佑)*와 함께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차(茶)를 팔다가 마침내 안남*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일본인 상선(商船) 10여 척도 강어귀에 정박하여 10여 일을 함께 머물게 되었다.

날씨는 어느덧 4월 보름이 되어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였다. 이날 밤이 장차 깊어 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열은 안개가 물 위에 어리었으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이 울고 있었다.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서 영불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펄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체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즉시 행장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불어서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풀었다.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니,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흐느낌이 피리 소리에 뒤섞이어서 맑게 퍼져 나갔다. 이에 수많은 뱃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들은 처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격분해서 머리가 곧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앉힐 정도였다.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언절구(七言絶句)를 읊었다.

왕자진*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王子吹簫月欲底]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만 서늘하구나. [碧海如海露凄凄]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하였다. 시를 다 읊더니, 그 사람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척은 그 시를 듣고 크게 놀라서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를 보고 주우가 말했다.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최척은 기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

진 것이라네. 하지만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어서 온 가족이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는 두홍(杜洪)*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맹한 장정이었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기를 띠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주우가 저지하며 말했다.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일세.”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그렇시다.”

최척은 앓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 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玉英)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에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여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 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 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저잣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처음에는 단지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 속에서 불들려 강가로 끌려갔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주우는 돈우(頓于)*를 만나 백금 세 덩이를 주고 옥영을 사서 데려 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돈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이제 4년 되었는데,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식을 함께하는 등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지금까지 그가 아낙네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직접 겪고 보니, 이는 천지신명도 오히려 감동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기는 하지만 진실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마 어떻게 그를 팔아서 먹고살 수 있었습니까?”

돈우는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銀子) 10냥을 꺼내어 전별금(錢別金)으로 주면서 말했다.

“4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에 가슴이 저리지만 하오. 온갖 고생 끝에 살아남아 다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며, 이 세상에는 없었던 일일 것이오. 내가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나를 미워할 것이오. 사우(沙于)*여! 사우여! 잘 가시게! 잘 가시게!”

- 조위한, 「최척전(崔陟傳)」-

- * 주우, 두홍 : 최척과 함께 장사를 하는 중국인들.
- * 안남 : 베트남.
- * 왕자진 :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죄를 입어 서인이 되었음.
- * 돈우 : 옥영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 일본인.
- * 사우 : 돈우가 옥영에게 붙여 준 이름.

43. 최척과 옥영의 재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국에서 만난 동포의 도움을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 ② 두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 ③ 두 인물이 평소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자비로 인해 이루어진다.
- ④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
- ⑤ 주변 인물들 중 대다수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일부에게는 의구심을 유발한다.

44. 윗글의 ‘밤’과 ‘아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밤은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고, 아침은 주인공이 현실적 문제와 대결하는 시간이다.
- ② 밤은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고, 아침은 조력자의 등장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 ③ 밤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계획이 구상되고, 아침은 개방적인 공간에서 그 계획을 실행할지 논의하는 시간이다.
- ④ 밤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아침은 그 내면적 갈등이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시간이다.
- ⑤ 밤은 주인공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아침은 극적 장면이 펼쳐지면서 그 긴장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임진왜란(1592~1598년) 등 16세기 말~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들은 각국 백성들의 삶에 심대한 수난을 초래했다. 이러한 역사를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 조위한의 「최척전」이다. 최척에게서 체험의 전말을 전해 듣고 이 작품을 썼다는 후기로 보면 이 작품이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둔 인물들의 이산(離散)과 귀향의 과정을 그린 유랑의 서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하여 아시아 여러국가에 걸쳐 있고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 및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① ‘경자년’, ‘4년’ 등은 최척과 옥영이 겪어야 했던 전란과 유랑체험이 역사적 실체성을 지닌 것임을 알려 주는 군.
- ② 처절하게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쉬는 것은 시가 옥영 자신의 이산과 유랑 체험을 계기로 지어진 것임을 알려 주는군.
- ③ ‘조선말’, ‘조선의 곡조’ 등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최척 부부의 재회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④ 최척 가족의 이산의 사연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눈물 흘린 것은 전쟁의 참상에 대한 인류애적인 연민을 보여 준 사례이겠군.
- ⑤ 돈우가 백금을 받고 옥영을 파는 대신 오히려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며 안타까이 보낸 것은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인간적 배려를 보여 주는 사례이겠군.

2018.09 [33~37]

(가)

만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하잖더니, 금일 이별 어이하리! 너를 두고 어이 가잔 말이냐? 나는 아마도 못 살겠다! 내 마음에는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 말고, 이 고을 풍헌(風憲)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 없을 것을, 생년 나을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한단 말이고?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하니, 누구를 탓하겠나마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 춘향이 대답하되, 우리 당초에 광한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하였소?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 우리가 그때 맺은 금석 같은 약속 오늘날 다 허사로세! 이리해서 분명 못 데려가겠소? 진정 못 데려가겠소? 떠보려고 이리하시오? 끝내 아니 데려가시려 하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A]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 ㉠ 명문(明文)씨 준 것이 있으니, ㉡ 소지(所志) 지어 가지고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 원님이 만일 당신의 귀공자편을 들어 패소시키시면, 그 소지를 덧붙이고 다시 글을 지어 전주 감영에 올라가서 순사또께 소장(訴狀)을 올리겠소. 도련님은 양반이기에 ㉢ 편지 한 장만 부치면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시키거든, 그 글을 덧붙여 한양 안에 들어가서, 형조와 한성부와 비변사까지 올리면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서 지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 ㉣ 판결문을 모두 덧붙태어 푹푹 말아 품에 품고 팔만장안 역만 가호마다 걸석하며 다니다가, 돈 한 푼씩 빌어 얻어서 동이전에 들어가 바리두경 하나 사고, 지전으로 들어가 장지 한 장 사서 거기에다 언문으로 ㉤ 상언(上言)을 쓸 때,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 이월이나 팔월이나, 동교(東郊)로나 서교(西郊)로나 임금님이 능에 거동하실 때, 문밖으로 내달아 백성의 우리 속에 섞여 있다가, 용대기(龍大旗)가 지나가고, 협연군(挾鞬軍)의 자개창이 들어서며, 붉은 양산이 따라오며, 임금님이 가마나 말 위에 당당히 지나가실 제, 왈각 뛰여 내달아서 바리두경 손에 들고, 높이 들어 땡땡하고 세 번만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격쟁(擊錚)을 하오리다! 애고애고 설운지고!

그것도 안 되거든, 애쓰느라 마르고 초조해하다 죽은 후에 낫이라도 삼수갑산 험한 곳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집을 지어,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체하고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 이별 말이 웬 말이오?

이별이란 두 글자 만든 사람은 나와 백 년 원수로다! 진시황이 분서(焚書)할 때 이별 두 글자를 잊었던가? 그때 불살랐다면 이별이 있을쏘냐? 박랑사(博浪沙)*에서 쓰고

남은 철퇴를 천하장사 항우에게 주어 힘껏 돌려메어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 벼락을 담당하는 상좌가 되어 내려와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 작자 미상, 「춘향전」-

* 박랑사 : 중국 지명. 장량이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곳.

(나)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가 이별이로다
춘향이가 도련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짓고 하는 말이

도련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리다
나를 두고 가겠으면 홍로화(紅爐火) 모진 불에다
다 사르겠으면 사르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잡을 데 없으시면 ㉠ 삼단같이 좋은 머리를

[B]

휘휘칭칭 감아취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날 두고 가겠으면 용천검(龍泉劍) 드는 칼로다
요 내 목을 베겠으면 베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두어 두고는 못 가시리다
날 두고 가겠으면 ㉡ 영천수(潁川水...) 맑은 물에다

던지겠으면 던지고나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이리 한창 힐난하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방자 놓 분부하여 나귀 안장 고이 지으니

도련님이 나귀 등에 올라앉으실 때

춘향이 기가 막혀 미칠 듯이 날뛰다가

우르르 달려들어 나귀 꼬리를 부여잡으니

㉢ 나귀 네 발로 동동 굴러 춘향 가슴을 찔 때

안 나던 생각이 절로 나

그때에 이별 별(別) 자 내인 사람 나와 한백 년 대원수로다

깨치리로다 깨치리로다 박랑사 중 쓰고 남은 철퇴로
천하장사 항우 주어 이별 두 자를 깨치리로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향단이 준비했던 주안을 갖추어 놓고

푹고추 겨리김치 문어 전복을 곁들여 놓고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별 낭군이 잡수시오

언제는 살자 하고 화촉동방(華燭洞房) 긴긴 밤에

청실홍실로 인연을 맺고 백 년 살자 언약할 때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曾參)* 되자더니

㉣ 산수 증삼은 간 곳이 없고

이제 와서 이별이란 웬 말이오

잘 가시오

잘 있거라

산점첩(山疊疊) 수중중(水…重重)한데 부디 편안히 잘 가시오

나도 ㉠ 명년 양춘가절*이 돌아오면 또다시 상봉할까나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 * 증상 : 공자의 제자. 고지식하여 약속을 반드시 지킴.
- * 양춘가절 : 따뜻하고 좋은 봄철.

3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련님’은 이별의 상황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춘향’은 ‘도련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을 우려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 ③ ‘춘향’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춘향’은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⑤ ‘춘향’은 천상의 존재에게 억울함을 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도련님’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춘향’이 쓴 글이다.
- ② ㉡ : ‘도련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③ ㉢ : ‘춘향’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려는 ‘도련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④ ㉣ : ‘도련님’에게는 약속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⑤ ㉤ : ‘춘향’이 ‘순사또’의 힘을 빌려 ‘임금’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지닌 자부심을 환기하여 좌절감을 완화하는 소재이다.
- ② ㉡는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어 현재의 고통과 대비하기 위한 소재이다.
- ③ ㉢는 부정적인 상황을 희화화함으로써 당면한 현실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 ④ ㉣는 기대가 어긋나 버린 사정을 부각하여 비애감을 심화하는 표현이다.
- ⑤ ㉤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표현이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여러 작품에서 ‘춘향’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춘향’은 원치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면모를 보이기도, 목표를 이루려 단호하게 행동하는 적극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신세를 한탄하며 절규하는 걱정적 면모를 드러내는가 하면, 문제를 숙고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치밀한 면모를 표출하기도 한다. 한편 ‘춘향’은 당대 민중의 시각을 대변하는 면모를 지니기도 한다.

- ① (가)에서 양반들이 한통속이어서 ‘도련님’을 두둔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의 입장을 취하는 ‘춘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구걸하고 다니면서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겠다는 모습을 통해, 뜻한 바를 성취하려는 ‘춘향’의 적극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을 말하며 ‘도련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모습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춘향’의 치밀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도련님’에게 주안을 울리며 여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서글픈 현실을 감내하려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 (나)에서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철택로 깨뜨리고 자하는 모습을 통해, 복받친 감정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춘향’의 걱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에 책을 대여하고 값을 받는 세책업자는 「춘향전」을 (가)와 같은 세책본 소설로, 유흥적 노래를 지은 잡가의 담당층은 「춘향전」의 대목을 (나)와 같은 잡가로 제작했다. 세책업자는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흥미를 높이거나 특정 부분의 분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 했다. 잡가의 담당층은 노래의 내용을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집약해 설명하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를 반복해 청중의 공감을 끌어냈다.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을 엮어 노래를 구성할 때에는 작품 속 화자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였다.

- ① [A]에서 ‘생는 나을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은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되겠군.
- ② [A]에서 ‘도련님’에게 거듭하여 묻는 형식을 사용한 것은 분량을 늘리려는 의도와 관련되겠군.
- ③ [B]에서 첫 행에 작품의 상황을 제시한 것은 청중을 작품의 내용에 빠르게 끌어들이려는 전략과 관련되겠

군.

- ④ [B]에서 '뭇 가시리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인물의 감정을 강조한 것은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되겠군.
- ⑤ [B]에서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은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이겠군.

피렘 comment

5. 극문학 : 극문학 역시 소설과 포인트는 같다. 추가적으로 지시문이나 사회자의 발언 등 대사 외의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송윤정T comment

극은 대체로 EBS에서 연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이해하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수능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 만약 낯선 작품이 나온다면, 인물을 중심으로 갈등의 양상, 원인, 해소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분석하되 보여주기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설보다 파악하기 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인물관계를 명확히 해야 지문 분석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다.

2009.09 [38~40]

파수꾼 가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파수꾼 다’는 여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반듯하게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파수꾼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몰려갔다.

파수꾼 다 정말 이리가 있다구 믿으세요?

파수꾼 나 보령, 방금도 이리 떼가 오질 않았니?

[A]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파수꾼 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파수꾼 나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파수꾼 다 오히려 이리가 있다구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 없구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중략)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뒷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

파수꾼 나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저쪽요, 저쪽. 찰레 덩굴 밀이던가요…….

파수꾼 나 드디어 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파수꾼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파수꾼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와 달라구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파수꾼 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구, 흰 구

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 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 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히 잘 익은 딸기 가 가득하단다.

파수꾼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파수꾼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파수꾼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텃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파수꾼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 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럴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 워한 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 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 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 이강백, 「파수꾼」 -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극중 시간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은 황야에 위치한 마을이다.
- ③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 ④ 등장인물들은 서로에게 협력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중심 갈등은 ‘파수꾼 나’와 ‘파수꾼 다’ 사이에 나타난 다.

39. <보기>를 참조하여 [A]를 서사극으로 공연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정통 연극은 무대의 모든 사건과 인물이 현실 그대로라 는 것을 강조한다. 무대 위의 행위는 진짜 행위이지 특정 한 배우가 아니며 무대 위의 상황도 현실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서사극은 현실과 극중 상황을 분 리하여 관객을 관찰자로 만든다. 관객에게 무대에서 이루 어지는 모든 것은 ‘연극’일 뿐이다. 그리고 그 비판적 거 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사극에서는 ‘낯설게 하기’의 기법 을 활용하여, 일부러 무대 장치를 노출하기도 하고 배우 가 관객에게 극중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 ① 무대의 배경 그림이나 망루를 실감 나게 제작한다.
- ② 배우들의 표정에서 내면이 잘 드러나도록 조명을 활용

한다.

- ③ ‘촌장’이 해설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는 점을 관객이 알 게 한다.
- ④ 파수꾼들에게 각각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여 개성을 드 러낸다.
- ⑤ ‘파수꾼 다’는 역할에 어울리는 연기로 관객의 연민을 이끌어낸다.

40. 위 글의 ‘팻말’과 ‘딸기’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딸기’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파수꾼에게 촌장이 제 공하는 보상을 뜻한다.
- ② ‘팻말’은 촌장이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팻말’은 명분 뒤에 숨겨진 ‘딸기’라는 실리를 촌장이 차지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 ④ ‘팻말’은 이리 떼라는 위협으로부터 ‘딸기’라는 공동체 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⑤ ‘딸기’는 ‘팻말’이라는 금기와 이리 떼라는 위협 아래에 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나타낸다.

2009.11 [37~39]

89. 불이의 집(낮)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들어낸 짐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돌아본다. 영희나 하고 달려가 문을 열면 얼굴이 부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영호 엄마 영희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

영호 엄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를……. 이거 고집니다.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말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불이 얼굴은 왜 다쳤니.

영호 (빙긋 웃고) ……덕분에 고기를 얻었어요. 얘기가 좀 복잡해요.

하고 함께 마당으로 나간다.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91. 불이의 집 마당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 다운*은 뻘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말없이 앞만 본다.

92. 레스토랑

영희가 접시의 고기를 서둘러 썰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94. 몽타주*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뺀 가족이 고기를 씹고 있다.
이들의 연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95. 불이의 집

㉠ 깡깡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면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넓혀 온다. ㉢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인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는 먼지의 마당. ㉤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인부의 대장이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흠뻑 젖어 앉으며 땀을 닦는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낮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접시에다 주섬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접

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 (담담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점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민다. 멍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말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만이 턱을 악물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점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집은 헬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96. 고급 맨션 앞

우철이 승용차를 몰아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희의 모습.

97. 불이의 집

일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 선 식구들 앞서 뽀얗게 먼지가 인다. “영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머에 의해 부서진다.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 흥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다운: 권투 시합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쓰러진 상대.

* 몽타주: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37.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인부들은 불이의 집을 허무는 일에 대해 기꺼워하지는 않았다.
- ② 영수는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며 지나간 기억을 반추하고 있다.
- ③ 어머니는 영희에 대해 무관심한 아들들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불이는 영호의 상처에 대해 물었지만 영호는 불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 ⑤ 영희는 우철의 다정한 태도에 호감을 느껴 자신의 현재 처지에 만족하고 있다.

38.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95’를 지문 내용에 충실하게 촬영하려고 한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해머 소리를 음향 효과로 제시하면서 흔들리는 담벽을 보여 준 후에 담벽에 난 구멍을 보여 준다면, 상황이 실감나게 전달될 수 있을 거야.
- ② ㉡: 담벽의 구멍을 보여 준 이후 그 구멍으로 해머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촬영하면, 카메라가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할

수 있을 거야.

- ③ ㉠: 담벽에 난 구멍을 통해 난쟁이 일가의 모습을 포착하려면, 카메라는 담벽 바깥쪽에 위치해야 할 거야.
- ④ ㉡: 담벽이 무너지고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도록 촬영하면, 난쟁이 일가가 겪을 사태가 구체화되는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거야.
- ⑤ ㉢: 난쟁이 일가가 식사하는 장면을 다시 화면에 담는다면, 절거 위협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난쟁이 일가의 태도를 부각할 수 있을 거야.

3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1, M2, ..., Mk, ..., Mn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1, S2, ..., Sk, ..., Sn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1 → S1 → M2 → S2 → ... → Mk → Sk → ... → Mn → Sn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k에서 Sk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k와 Sk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① # 90, # 92, # 96은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이다.
- ②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③ 주 플롯과 부 플롯은 #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된다.
- ④ ‘고기’는 주 플롯과 부 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유사성으로 활용된다.
- ⑤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의 대조를 통해 두 플롯을 연계한 대목이 있다.

2012.11 [37~39]

이때 ㉠ 동리 사람들, 들것에 복조 송장을 태워 들어온다. 물이 똑똑 떨어진다. 복실과 분 어머니, 의아하여 잠시 보고 있더니 달려들어 목 놓고 운다. 동리 사람들, 소리를 낮춰 힐끔힐끔 운다.

간(間)

처 (부엌에서 나오며) 왜들 우니?

분 어머니와 복실 어머니, 복조예요.

동리 사람 3 ㉡ 쇠뿌리로 배 내다가 보니 범바위 틈에 꺾습니다.

처 물에서 죽은 농이 복조뿐인가? 어떻게 복조라고 장담해. (아무 관계없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간다.)

(노어부를 석이와 윤 침지가 양편에서 꼭 붙들고 들어온다.)

노어부 낚. 두고 볼 거 아니야.

윤 침지 참어. 참는 데 복이 있다네. 그저 참는 것이 제일이야. 참을 인(忍) 자가 셋이면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말이 있지 않나.

석이 (그제야 들것과 사람들을 보고) 누나, 이것이 작은 형이요? (붙들고 운다.)

윤 침지 찾았으니 다행이군. (눈물을 씻는다.)

노어부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눈물을 닦으며 서러운 소리로 똑똑히) 몇 해 전에는 배도 서너 척 있었고, 그물도 동리에 뛰어나게 가졌드랬지. 배 팔고 그물 팔고 나머지는 뭐냐? 내 살덩이밖에 없었어. 그것도 다- 못해서 다리 한쪽 뺐겼지. 고기잡이 3년에 자식 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윤 침지…….

윤 침지 …….

노어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두고 보고 바랄 것이 인제는 하나도 없어. (별안간 부엌 뒤로 퇴장. 들어가더니 **괘이**를 들고 나온다. 뒤따라 처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부지괘이로 노어부의 머리를 후려 때린다. 노어부 쓰러진다.)

처 (괘이를 잡아 뺏으며) 이 괘이가 무슨 괘인 줄 알아?

노어부 (덤비려다가 처의 너무도 핏색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려 복조를 붙들고 운다.)

처 내가 맑은 물 떠 놓고 수신께 빌었거든. 이것은 우리 복조 아니야. 내 정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전신을 파먹히게 안 했을 거야. 지금쯤은 너구리섬 동녘에 있는 시퍼런 깊은 물속에. 참 거기는 미역 냄새가 향기롭지. 그리고 백옥 같은 모래가 깔렸지. 거기서 팔다리 쪽-뺏고 눈감았을 거야. 나는 지금 눈에 완연히 보이는 걸. 복조 배 위로 무지갯빛 같은 고기가 썩- 지나갔어. (눈앞에 보이는 환영을 물리치는 듯이 손으로 앞을 가리며) 눈감은 얼굴이 너무도 쓸쓸하군. 이렇게 (시늉을 하며) 원망스러운 얼굴이야. 불만스

[A]

러운 얼굴이야. 다문 입이 너무도 쓸쓸해.

간(間), 울음소리

통창으로 가야지. 서남풍이 자고, 동풍이 불면 나를 만나러 올지도 몰라. 아니야 꼭 올 거야. 저녁물 아니면 내일 아침물 그도 아니면 모래 아침물. 산수 자리를 골라놓고 동쪽을 보고 기대려야지. (일동을 보고 픽 웃으며) 뭇 때문에 울어들? (괘이를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간다.)

석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속이 타서 발을 구르며) 아버지, 얼른 가서 어머니 좀 붙드세요. 얼른 얼른 아버지.

노어부 내 알 것 아니야.

석이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뒤따라 퇴장) ㉢ (멀리서 처의 웃는 소리 우는 소리 번갈아 들린다.)

노어부 (일어서며) 윤 침지, 북망산으로 가지.

복실 촛불 하나 안 키고 관도 없이 어델 가요?

분 어머니 사람 목숨이 이렇게도 썩어. 뒤란에 검부락지 쓸어가듯 획 쓸어 가면 고만이야.

윤 침지 장성한 사람을 그럴 수 있나.

분 어머니 (일어서며) 난 항구로 가겠다. 더 있는뎡자 가슴만 줄이지. 울며 웃으며 한세상 살다 그럭저럭 죽을 때 되면 죽지. (언덕을 넘어 퇴장)

노어부 (뒤통을 바라보다가) 왜, 과부 수절하기가 싫으냐?

석이 (울면서 등장) ㉣ 어머니가 갯가에서 괘이로 물을 파며 통곡을 하시다가는 별안간 허파가 끊어진 것처럼 웃으며 (복실의 가슴에 안겨) 누나야. 어머니는 한세상 참말 헛사셨다. 왜 우리는 밤낮 울고불고 살아야 한단든?

복실 (머리를 쓰다듬으며) 굴뚝에 연기 한 번 무럭무럭 피어오른 적도 없었지.

석이 (울음 섞인 소리로, 그러나 한 마디 한 마디 똑똑히) 왜 그런지를 난 생각해 볼 테야. 긴긴 밤 갯가에서 조개 잡으며, 긴긴 낮 신작로 오가는 길에 생각해 볼 테야.

복실 (바다를 보고) 인제 물결이 자는구나.

윤 침지 ㉤ 먼동이 트는군. (나가면서)

(노어부를 보고) 사람 삼키더니 물결이 얼음판 같아 졌지. 자네 한 잔 쪽- 들이키고 수영 닦는 듯이. 어서 초상 준비나 하게. 상엿집에 행하니 다녀올 테니.

- 막 -

- 함세덕, 「산허구리」-

37.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복조’와 ‘복실’은 평소에 친했던 이웃이다.
- ② ‘석이’는 형의 죽음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③ ‘윤 첨지’는 ‘노어부’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 ④ ‘분 어미’는 친정이 있는 항구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 ⑤ ‘복실’은 행복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38. ㉠~㉣을 통해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관객에게 전달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알려 주고 있다.
- ② ㉠과 상반된 ㉡의 정보로 인해, ㉢에 대한 관객들의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 ③ ㉣은 무대 밖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청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④ ㉣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알려 주지만, ㉢과 연관되면서 무대 밖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환기하기도 한다.
- ⑤ 관객은 ㉣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분명하게 인지하여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9. <보기>의 ㉠~㉣ 중 [A]의 괄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괄이는 ‘복조’가 사용하던 것으로, 사건 진행과 인물의 정서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도구이다. 처음에 괄이는 관객이 볼 수 없는 부엌 뒤에 놓여 있었는데, ㉠ ‘노어부’가 무대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관객들의 주목을 끌게 된다. 이후 괄이는 ㉡ ‘처’가 ‘노어부’를 뒤따라 움직이는 계기를 제공하고, ㉢ ‘처’가 ‘노어부’와 충돌하게 만드는 매개체 구실을 하며, ㉣ ‘처’가 내면 심경을 직접 토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 관객들은 괄이에 대한 ‘처’의 집착을 지켜보면서 ‘처’의 내면을 엿볼 수 있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17.09 [21~24]

(가)

124. 뚝막 안

자리에 누운 송 영감. 나직히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 그릇을 놓는다.

옥 수: 약 잡수셔야죠 ……

송 영감 : (눈을 뜨며) 음?!

옥수 일어나려는 송 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 준다. 약을 마시는 송 영감.

송 영감 :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 수: ㉠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 ……

송 영감 : 음!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햇별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 DIS* -

125. 가마 앞(황혼)

마당에 놓인 중옹, 통옹, 반옹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밑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

웁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 영감이 비실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 영감 : (흔젯말처럼) 이럴 수가 ……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아냐! 이거 독이 아냐! (계속 보며) 이것두! 이것두 …… (비통하게) 이거 흙덩이다!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웁 손 이 :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송 영감 : 비켓! (뿌리친다)

나가떨어지는 웁손이

석 현 : ㉢(잡으며) 안됩니다! 성한 것두 있어요!

송 영감 : 닥쳐! 이거 부정을 댔어! 모두 쳐부셔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다.

㉤* 뚜왕! 뚜왕!

박살 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웁 손 이 : (비통 혼젯말같이)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험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 뚜왕! 뚜왕!

송 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 나온다.

㉦ 뚜왕! 뚜왕! 뚜왕!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송 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 DIS -

-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 DIS :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남.

* ㉦ : 효과음.

(나)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울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 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웁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밖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려 깨워서였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고 하니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 더냐고 밥그릇을 밀쳐 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A]

다음날 아침에는 송 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었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

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흙 이기던 뿔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 영감에게 내년엔 마저 지어 첫 가마에 널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 * 조마구와 부채마치 : 용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한 쌍의 도구.
- * 전 : 용기 등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

21. <보기>의 관점에서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 ① ‘아냐! 이걸 독이 아냐!’는 ㉠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 ② ‘흙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 몇 덩이’는 ㉡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 ③ ‘매섭게 보다가 행하니 간다’는 ㉠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 ④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 ⑤ ㉠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것은 미적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준다.
- ② ㉡ : ‘뿔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 ③ ㉢ :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 ④ ㉣ :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 : ‘애’가 언제나처럼 ‘뿔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발화를 통해 등장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나)의 ‘재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2017.11 [27~32]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남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A]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
도 속스러운 수가 있을까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피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나)

함이정 : 처녀 때 난 생각했었지. 영리하고 등직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쁜 일 슬픈 일 뭐
든지 의논할 수 있는 내 아들…… 그러다가 너를 느

꼈고…… 네 느낌과 이야기하길 즐겼다. 사람들은 나
 혼자 중얼중얼 거린다고 괴상하게 보더라. 사실은 너
 와 나, 둘이서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조승인 :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함이정 : 처음부터……?

조승인 :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
 터요. 그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 그땐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
 지.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보니까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 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
 셧지. “동연아! 서연아!” 아버님 목소리가 어찌나 쩌
 령쩌렁 울렸는지, 천 리 밖까지 들릴 것 같더라.

(조명, 밝게 변화한다. @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
 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함요진의 집. 함요진이 성난 모
 습으로 등장한다. 함이정과 조승인은 서연의 관, 촛대, 향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함요진 :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함요진 : 여기 집 안에도 없다……?

함이정 : (무대 밖에서) 내가 나가서 찾아올까요?

함요진 : 넌 가만 있거라. (다시 외쳐 부른다.) 동연아!
 서연아!

(㉞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승인, 무대 안
 으로 나온다.)

조승인 :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함이정 :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함요진 : 동연아! 서연아!

(동연과 서연, 등장한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함요진 앞에
 선다.)

동연, 서연 : 부르셨습니까?

함요진 : 작업장엔 너희들이 없더구나!

동연 :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함요진 : 밖에는 왜?

동연 :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함요진 : 말다툼?

동연 : 네.

함요진 : 서연아, 네가 다툼 이유를 말해 봐라.

서연 : 송구스럽습니다…….

함요진 : 너희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런 너희들이
 말다툼을 하다니, 도대체 다르다면 뭐가 달랐더냐?

서연 : 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
 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함묘진 : 그런데, 너는?

서연 : 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동연 :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중략)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돌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 조명,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함이정 : 개울물이에요, 서연 오빠. 여기서 길은 끊겼어요.

서연 : (개울가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며) 너도 마시렴. 목마를 텐데…….

[B] 함이정 :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 얼굴 뒤편 구름이……. 구름 뒤편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 물이 맑고 시원해요.

(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한다.)

함이정 : 오빠……. 뭘 하는 거죠?

서연 :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 물부처요?

서연 : 둘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함이정 :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 서연 오빠…….

서연 :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 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

(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 조송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개울물 건너쪽, 눈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 / 코러스(돌부처)들,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간다. 개울 저쪽, 눈부시도록 빛이 밝다. ㉢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들어온다.)

조송인 :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함묘진 :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

(함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빛 안으로 들어간다. 무대 조명, 변화한다. 동연, 등장한다. 그는 조송인에게 다가와서 전보 용지를 내놓는다.)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2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 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 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준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데.
-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겠군.
- ④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하는 것이겠군.
-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가겠군.

2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는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쇄를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A]의 대상들은 화자의 만족을, [B]의 대상들은 인물의 불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나고, [B]에서는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
- ⑤ [A]와 [B]는 대상의 속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0.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킨다.
- ② ㉡ : 등장인물들의 의상 교체로 장면 전환을 나타낸다.
- ③ ㉢ : 조명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준다.
- ④ ㉣ : 등장인물이 무대 밖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다.
- ⑤ ㉤ :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의 공간이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상징적 공간이라면, (나)의 공간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 줘야 하는 극의 특성상 극중 인물의 현실이 상징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와 (나)에서, 공간들은 때로 대비되면서 여러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가)의 ‘집’과 ‘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이군.
- ② (가)에서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먼 산정’은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기 위해 상정한 공간이군.
- ③ (나)에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치는 공간이군.
- ④ (나)의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하늘’과 대비되는 곳으로 서연의 예술관이 조승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군.
- ⑤ (나)의 개울물 ‘저쪽’은 개울물 ‘이쪽’과 대비되는 곳으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군.

32.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에서 함이정은 극 중의 사건을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서 함요진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무대로 등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승인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으로서 기능한다.
- ⑤ “둘로도 부처님을 ~ 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서연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기능한다.

2018.09 [23~26]

최 노인 : :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 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 보니까 고추 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저 멧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 말세야 말세!

이때 경재 제복을 차려 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경재 : 원 아버지두……

최 노인 : : 이놈아 뭐가 우스워?

경재 :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 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 노인 : : ㉡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경재 :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 (웅변 연사의 흥을 내며) 역사는 강처럼 쉴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에헴!

(중략)

경수 : 여보 영감님!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게다가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는데 그래 겨우 이백오십만 환이라구요? ㉣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

복덕방 : 뭐 뭐요? 공동묘지에서라고? 예끼 버릇없는 농갈으니라구!

경수 : 아니 이 영감님이……

복덕방 : 그래 이놈아 너는 애비도 예미도 없는 농이기에 나이 먹은 늙은이더러 공동묘지에 가라구? 이 천하에.

최 노인 : : 여보 김 첨지. 젊은 애들이 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걸 가지고 탓할 게 뭐요?

복덕방 : 그래 내가 집 거간이나 놓고 다니니까 뭐 사고 무친한 외도토리 줄 아느냐? 이놈아! 나도 장성 같은 아들에다 딸이 육 남매여!

경수 :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 : 넌 잠자코 있어! 용서하시우.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 까요…… 게다가 술을 마셨다우.

복덕방 : 음 이놈이 한낫부터 술 처먹고 어른에게 행패구나! 이놈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최 노인 : : 김 첨지! 글썽 진정하시라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사죄하겠소 원!

복덕방 : 그러고 이백오십만 환이 터무니없는 값이라고? 이놈아 누군 돈이 바람 맞은 대추알이라던? 응? 그것도

잘 생각해서야! 음! 이런 분한 일이 있나!

최 노인 : : 글썽 참으시고 이리 앉으세요.

복덕방 : 난 그만 가 보겠소이다. 이런 일도 기분 문제니까요! 다른 사람 골라서 공동묘지로 보내구려! 예잇.

최 노인 : : 아 ㉤ 김 첨지! 김 선생! (하며 뒤를 쫓아 나간다.)

경수 : 제길 무슨 놈의 영감이 저래?

어머니 : 네가 잘못이지 뭐니……

경수 : 집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최 노인 새근거리면서 등장하자 이 말을 듣고는 성을 더 낸다.

최 노인 : : 이놈아! ㉥ 누가 이 집을 판다고 했어? 응?

경수 :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뭣 하러 복덕방은……

최 노인 : : 저런 쓸개 빠진 녀석 봤나! 아니 내가 뭣 때문에 이 집을 팔아? 응? 옳아 네놈 취직 자본을 대기 위해서? 응?

어머니 : 아니 그럼 이백오십만 환이란 무슨 애깁니까?

최 노인 : : 네 따위 놈을 위해서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니? 전세로 육 개월만 내놓겠다는 거야!

경수 : 예? 전세라구요?

㉦ (어머니와 경운은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최 노인 : : 왜 아주 안 파는 게 양에 안 차지? 이놈아! 이 애비가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는 꼴이 그렇게도 보고프냐?

경수 : (당황하며)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최 노인 : : 아니면 껌질이나?

어머니 : ㉧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뭣 하시게요?

최 노인 : : 글썽 아까 어떤 친구 얘기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드라 ‘샤뽀오드’이라든가……

경운 : ‘샤뽀오드*’ 말씀이예요?

최 노인 : : 그래 ‘샤뽀오드’ 말이다! 그건 차리는 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관찮다고 하면서 4가에 적당한 집이 있다가에 그걸 해 볼까 하고 이 집을 보였지. 그래 얘기가 거이 익어 가는 판인데 글썽 다 되어 간 음식에 코 빠치기로 저 녀석이……

어머니 : 아니 그럼 전세로 이백오십만 환이란 말인가요?

최 노인 : : 그렇지! 저 가게만 해도 백만 환은 받을 수 있어!

어머니 :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괜히……

최 노인 : : 뭐가 괜히야?

경운 : ㉨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 줄만 알았어요.

최 노인 : : 흥! 너희들은 모두 한속이 되어서 어쩌든지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 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된 것들! (하며 불쑥 일어선다.)

어머니 :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만……

최 노인 : : 듣기 싫어! (화초밭 으로 나오며) 이 집안에

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 흔한 햇볕도 안 드는 집이 뭣이 된단 말이야! 뭣이 돼! (하며 화초밭을 함부로 작신작신 짓밟고 뽑아 해친다.)

어머니 : ㉠ (맨발로 뛰어내리며)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들을…… 원…… 당신도……

최 노인 : : 내가 정성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안 되지 않아! 하나도 씨도 말야!

- 차범석, 「불모지」-

* 사뽀뽀오드(shuffleboard) : 오락의 한 종류.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장면의 전환을 통해 각 인물의 내면이 부각되고 있다.
- ③ 인물들의 복장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등퇴장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실제 지명의 노출을 통해 극중 상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최 노인’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 : ‘경재’의 말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 호칭을 달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최 노인’의 노력이 드러나 있다.
- ④ ㉠ : 두 인물이 ‘경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 ⑤ ㉢ : ‘어머니’의 다급한 심리를 행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25. <보기>와 ㉠~㉢를 관련지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발견’이란 인물이 극의 전개 과정에서 사건의 숨겨진 측면을 알아차리는 계기를 드러내는 기법이다. ‘발견’의 대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몰랐던 사실이나 새로운 가치, 인물의 다른 면 등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기도 하고 인물들의 갈등 양상이 변모되기도 한다.

- ① ‘경재’는 ㉢를 통해 ‘최 노인’이 예전과 달라진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드러내는군.
- ② ‘복덕방’은 ㉠를 통해 ‘경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과의 흥정을 중지하게 되는군.

- ③ ‘경수’는 ㉡를 통해 ‘최 노인’이 집을 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군.
- ④ ‘최 노인’은 ㉠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어머니’가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군.
- ⑤ ‘최 노인’은 ㉢를 통해 집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경운’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군.

26. 화초밭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가족들의 희망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 ② 중심인물이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장소이다.
- ③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소이다.
- ④ 중심인물이 현재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책하는 장소이다.
- ⑤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여 허망해하는 중심인물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정답

1. 현대시or고전시가

2009.06 [20~23] 20.② 21.② 22.⑤ 23.④
 2010.06 [13~16] 13.⑤ 14.⑤ 15.④ 16.⑤
 2011.06 [19~22] 19.④ 20.④ 21.③ 22.④
 2015.11B [43~45] 43. ① 44. ③ 45. ①
 2018.09 [20~22] 20. ① 21. ④ 22. ③
 2015.06B [43~45] 43. ③ 44. ④ 45. ③

2. 복합지문

2008.09 [20~24] 20.② 21.⑤ 22.① 23.①
 24.④
 2008.11 [13~18] 13.⑤ 14.③ 15.① 16.②
 17.② 18.③
 2009.09 [28~33] 28.② 29.② 30.① 31.②
 32.② 33.④
 2009.11 [28~33] 28.① 29.③ 30.② 31.② 32.④
 33.④
 2010.06 [31~35] 31.① 32.④ 33.③ 34.③ 35.⑤
 2010.11 [32~37] 32.③ 33.② 34.⑤ 35.② 36.①
 37.②
 2015.11B [31~34] 31. ④ 32. ⑤ 33. ④ 34. ②
 2016.09B [34~38] 34. ⑤ 35. ③ 36. ② 37. ①
 38. ④
 2017.09 [40~45] 40. ⑤ 41. ⑤ 42. ① 43. ①
 44. ④ 45. ①
 2017.11 [21~26] 21. ④ 22. ④ 23. ⑤ 24. ③
 25. ③ 26. ⑤

3. 현대소설

2008.06 [23~25] 23.③ 24.④ 25.④
 2008.09 [40~43] 40.② 41.② 42.④ 43.②
 2009.06 [28~31] 28.① 29.④ 30.⑤ 31.⑤
 2009.09 [47~50] 47.③ 48.① 49.② 50.③
 2010.06 [23~26] 23.② 24.③ 25.③ 26.④
 2010.09 [40~43] 40.③ 41.③ 42.④ 43.③
 2015.06B [34~38] 34. ④ 35. ② 36. ④ 37. ③
 38. ①
 2015.11B [38~42] 38. ① 39. ⑤ 40. ⑤ 41. ④
 42. ⑤
 2017.06 [39~42] 39. ① 40. ⑤ 41. ③ 42. ⑤

4. 고전소설

2008.11 [27~30] 27.② 28.③ 29.④ 30.①
 2009.11 [47~50] 47.② 48.⑤ 49.① 50.④
 2010.06 [43~46] 43.① 44.① 45.④ 46.③
 2011.09 [21~24] 21. ④ 22. ④ 23. ④ 24. ①
 2014.11B [31~34] 31. ③ 32. ③ 33. ① 34. ⑤
 2015.06B [39~42] 39. ④ 40. ⑤ 41. ⑤ 42. ②
 2017.06 [43~45] 43. ② 44. ⑤ 45. ②
 2018.09 [33~37] 33. ④ 34. ④ 35. ④ 36. ③
 37. ⑤

5. 극문학

2009.09 [38~40] 38.③ 39.③ 40.③
 2009.11 [37~39] 37.① 38.② 39.③
 2012.11 [37~39] 37. ③ 38. ② 39. ④
 2017.09 [21~24] 21. ④ 22. ③ 23. ④ 24. ⑤
 2017.11 [27~32] 27. ② 28. ② 29. ① 30. ②
 31. ④ 32. ③
 2018.09 [23~26] 23. ⑤ 24. ④ 25. ④ 26. ⑤